朝鮮日報
夕刊
三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本社定期刊行物
少年朝鮮日報(日曜附錄)
朝鮮日報「朝光」(月一回發行)
同「女性」(上同)
同「少年」(上同)

漢陽タクシー 銀座一丁目 電話本局 二〇〇二番 三〇〇三番

蘇聯의撤收同意로 乾岔子島事件圓滿解決

重光大使發表

【莫斯科二日發同盟】莫斯科駐箚日本大使重光葵氏는 二日午後蘇聯外務人民委員部에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을 訪問하고 重要會談을遂하엿다 會談은 約三十分만에 終了되엿는데 重光大使는 圓滿交涉解決을發表하야 左와如히述하엿다

今日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과 會談한結果 蘇聯政府는 從者蘇聯軍隊가 占據한 乾岔子及金阿穆河兩島로부터 撤兵하는同時에 兩島附近에集結한 二十隻以上의 蘇聯砲艦을 撤收하는데 同意하엿다

【莫斯科二日發同盟】莫斯科駐箚日本大使 重光葵氏는 二日午後 蘇聯外務人民委員部에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을 訪問하고 乾岔子島事件에 對하야 重要會談을 遂하엿다 席上에서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은 重光大使에對하야 『蘇聯政府는 現地로부터 蘇聯軍隊를 撤退하는데 同意한다』는旨를 回答하엿다 (寫眞 右는 重光大使、左 리氏)

重光리氏會談內容

【莫斯科二日發同盟】乾岔子島事件交涉會談席上重光大使는 리트비노프委員에對하야『乾岔島及金阿穆河島에는 現在日滿軍은 一兵도 駐在치안코兩島附近에滿洲國砲艦은一隻도 가서잇지안타』는旨를正式通告하야 蘇聯側의撤兵을 要求하엿다 이에對하야리트비노프委員은『蘇聯政府는 卽時兩島에잇는蘇聯軍隊의 撤兵及附近에 集結中의蘇聯側艦隊의撤收를 命한다』는旨를約言하엿다 重光大使는다시蘇聯側의撤兵이 果然實行되는가안되는가는 今後의實績에徵하는外는업는데 實行에옴기게되면 日本政府는 事態를圓滿解決된것이라고할것이라고말하여두엇다 또黑龍江沿岸의國境問題及乾岔子 金阿穆河兩島의 歸屬에 對하야는 今後折衝으로 決定하기로 兩者意見一致되엿다 確聞하면 蘇聯政府는 二日 重光、리트비노프會談에 關하야 늣저도 二日午後十時까지에는 콤뮤니케를 發表할 豫定이다

重光大使聲明

【莫斯科二日發同盟】莫斯科駐箚帝國大使重光葵氏는 二日午後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과 會見한後 左와如히聲明하엿다

余는 二日午後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을 訪問하고 乾岔子島事件에關하야 會談을交換한結果 同事件에 圓滿解決을지엿다

今後의推移 嚴重監視 陸軍側의態度

【東京電話同盟】乾岔子島事件에關하야 重光大使가 二日午後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과 會見한後 蘇聯邦의撤退同意로 事件의圓滿解決을 聲明하엿다는 報道를接한 我陸軍當局에서는 乾岔子島로부터 蘇聯軍의 撤退及同島附近에 集結中인 蘇聯砲艦의 撤收는 當然한것으로 도리혀晩時之歎이잇다 그러나 撤退撤收에依하드라도 事態는 單純히原狀에回復된데不過하고 同島의歸屬如何라는 重大問題가 殘存되여잇슴으로 全然 解決되엿다고는할수업다 今後에도 어데까지 愼重한態度로 事態의推移를 注目할것이라는 見解를갓고 愼重히 嚴重監視를 繼續하고잇다

赤軍極東軍總司令 브元帥早晩放逐?

『스탈린』共產黨書記長의忌諱에抵觸되여 莫斯科에軟禁說流布

【倫敦二日發同盟】蘇聯赤軍極東軍司令官브뤼헬元帥는先般極東에歸還 乾岔子島事件發生과同時에 現地에서 活躍하고잇다고 報道되엿으나 莫斯科의信憑할만한側에서 온倫敦着情報에依하면 브뤼헬元帥는 아직莫斯科에잇고 市內某所에서 嚴重監視를 맛고잇다한다 브뤼헬元帥는 最近스탈린共產黨書記長의 忌諱에抵觸되엿스므로 早晩放逐의運命을 當하지안흘가觀測된다 (寫眞은 브元帥)

蘇聯政府도 陸海軍撤收發表

【莫斯科二日發同盟】쏘베트政府는二日夜 타스通信社를 通하야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쏘베트國防人民委員部는 二日 重光、리트비노프會談結果에 依하야 乾岔子島및 金阿穆河島附近에 集結中의 쏘베트哨兵및 軍用『카터』의 撤收를命令하엿다

貴革問題에對해 松平議長談

【橫濱電話同盟】松平、佐佐木貴族院正副議長은 神宮及各山陵에 新任奉告次로 一日午後十時半、東京驛發列車로 西下하엿다 車中松平議長은 貴族院改革問題에 對하야 左와如히말하엿다

貴族院改革問題에 對하여는 近衛首相은 相當한 決意를 抱懷하고잇는 模樣인데 이런것은 斷行하지안허서는 안될것이다 그러나 國民은 一體로 貴族院에 어떠한 期待를 갓고잇는지 勿論 그런點을 充分考慮할 必要가잇다 衆議院은國民의 輿論을 代表하는것이오 貴族院은 所謂特權階級이라는 觀念이잇는데 貴族院이라는 名稱이잇는 以上 其立場을 實質的으로 考慮하야 새로운 時代에 適合하도록 形式을 變함이 必要하다 이것이改革의 意義가 아닌가 思維된다 自己는 政府의 貴族院制度調査會의 委員은안이오 또議長으로이의 立場上改革意見의 發表는 留保하고십다 急進派의 改革論과 保守派의 自重論이잇는데 이를適當히 調整하지 안흐면 안될 것이고 그調整後에일이 自己의 任務가 아닌가 思維된다 今回의改革中 職能代表制를 設하는것이 論議되므로 이미自己手中에俗倡를加하라는가 其他種種注文이 온다 이것도자못 구찬은問題이다 多額議員의 現在制度는 首肯할수업다 도리혀 改正前의 各府縣標準數十五名의制度가 조흔줄로 思한다 知識議員이라하나 現在衆議院에는相當히 豪壯한智識議員이 選出되여잇스나 貴族院에도 知識議員을 多數모흐게되면 自然 그들에게 異動性을주어 衆議院議員의質을 低下하게되지안흘가 思維된다

秩父宮殿下 버밍감御視察

【倫敦二日發同盟】秩父宮殿下께서는 富井參事官以下를 御隨伴케하시고 二日午前九時十五分유스톤停車場에서 英吉利工業都市버밍감市에向하섯다 御一行은午前十一時十分 버밍감驛到着、市長로바-트氏 英吉利帝國化學工業會社重役會長 고강氏 英吉利二大自動車會社社長인 뉴-필드卿오-스틴卿其他 英吉利工業界巨頭等의 御出迎을受하시며 直時고강氏等의 御案內로 有名한化學工業工場을御覽 正午『친수·호텔』에서의 歡迎午餐會에臨하섯다 席上 秩父宮殿下께서는 로바-트市長의 乾杯에對하야 余는 日本工業界가 先進國인英國 工業界와의 協力에依하야 今日의 隆盛을 본것에感謝의意를表하며 今後도 日英兩國의 工業界는 相携하야世界平和及世界的繁榮促進에 貢獻하기를 希望하고잇다 라고 述하사 來會者一同에게 깁흔 感銘을與하시엇다 午後 殿下께서는 버밍감市의 各工場을御見學 午後五時十二分 버밍감御出發 同六時五十分 倫敦에 御歸邸하옵섯다

皇太子殿下 葉山에御避暑

【東京電話同盟】皇太子殿下께서는 더욱 御健康하옵신데 炎暑를 避키爲하시와 三日午前九時三十五分、石川、山田兩傅育官、伊知地、雲井兩御養育掛、廣幡皇后宮大夫、太田侍醫等 御同伴하시고 東宮假御所御出門、同五十二分 東京驛發、同十時十一分 逗子驛御着、葉山御用邸의 附屬邸에 드시옵섯다

三橋警務局長 三日京城着歸任

先月初旬以來 東京出張中이든 三橋警務局長은 拓務省其他關係當局과 要務의 協議折衝을完了하고 三日午後一時三十分『아까쯔기』로 京城驛着列車로 前後二十日만에 歸任하얏다

三橋警務局長歸任談

【釜山電話同盟】南總督에 隨行하야 渡東中이든 三橋警務局長은 三日午前에入港한 關釜連絡船으로 上陸하야 總督보담 먼저 同七時五十分發『아가쯔기』로 歸任하엿는데 同局長은 左와如히말한다

今回의 渡東은 單純히처음 渡東하는 南總督을 案內하기爲함이엿다 二十四、五日頃까지 一切의要務를마치고 六月中에 歸任할豫定이엿스나 여러가지 雜務가생겨 豫定보담 늣게되엿다 渡東以來 總督의 元氣는 實로旺盛하고 要務가 山積되여 마침내 歸任日字도 延期를 不得已하게되엿든것이다 今回의 渡東成果로 警務關係事項은 警務官의 大增員에伴하는 官制改正件으로 十日頃에는 公布할豫定이다 이와同時에警視警部級合計四十名의 任命發令을行하고 道廳所在地의署長은 全部警視로 昇格식힐려임으로 이에伴하야 相當히廣範圍의 異動이實現될것이다 이外에警官三百名增員은 特別議會에 追加豫算으로提出할것인데 다시 釜山、平壤兩署에新設될 刑事課의 經費는 通常議會에 提出하야 十三年度부터 實現식힐려이다

滿鮮經濟會議 近日中開催

【新京二日發同盟】南朝鮮總督이 鮮滿一如를 提唱한以來 鮮滿關係는 자못圓滑히進行되는데 企業方面에서도 鮮滿을 一貫한産業計劃樹立을 目標로 滿鮮經濟會議를 開催하게되여 右에關한 要務를帶하고 滯京中이든 穗積朝鮮總督府殖産局長은 關東軍及滿洲國政府와의 協議를遂하고 二日午後二時二十分 新京發列車로 歸京途上에올랏다 滿鮮經濟會議는 滿鮮雙方에關係잇는 鴨綠江北朝鮮三江省等의問題뿐이아니라 滿洲國産業開發計劃과朝鮮新興産業과의 關係를 研究한後 適地適應主義에依하야 滿鮮一帶의産業政策을 樹立하려는것으로 會議開催地及議題等에對하여는 滿洲國政府와 朝鮮總督府와의間에 協議를遂하야 可及的速히開催하게되리라고 豫想된다

意見完全對立

不干涉體制崩壞直面

【倫敦二日發同盟】二日午前英國外務省에서 再開된 不干涉委員會分科委員會는 國際監視隊補强案을 中心으로 獨伊對英佛의意見이 全然對立되여 會議는 거이決裂狀態에 陷하엿다고傳한다 分科委員會는 午後一時四十五分一旦休憩하고 午後四時半에再開할豫定인데 事實上會議는 午前中 이미決裂된것과 同樣으로 午後의 會議에서는 經過報告의 콤뮤니케를 起草하리라고 解釋된다 分科委員會의 經過는委員會에報告되엿는데 今回의決裂은 結局 不干涉體制의 崩潰를意味하는것인바 그推移는注目된다

拓務省辭令

【東京電話同盟】
拓務書記官兼總督府事務官 稻垣征夫
任拓務事務官(二等) (拓務局勤務)
總督府道警視 桂珖淳
任拓務事務官(六等) (殖産局勤務)
拓務理事官 石井壽
任拓務事務官(七等) (管理局勤務)
總督府道警視 和栗博
任拓務事務官(七等) (拓務局勤務)

人民戰線政權援助懇請

極秘裡巴里에到着한西外相 佛外相과重要會談

【巴里二日發同盟】極秘裡에 巴里到着을 傳하는 西班牙外相떼리에라氏는 二日佛國外務省에 突然 나타나 델보外相과 重要會談을 遂하엿다 會談內容은 何等發表치안흐나 떼리에라外相은 델보外相에對하야 不干涉體制崩潰時 佛國政府의 발렌시아政權援助를 懇請한것이라고 解釋된다 一方 西班牙首相네그린氏도 近近巴里를 訪問할豫定임을 傳하는데 西班牙大使館當局에서는 [illegible] (寫眞은 델보氏)

總督府局長及 知事以下의異動發令

【東京電話同盟】朝鮮總督府農林局長以下의 大異動은 三日左와如히發令되엿다

朝鮮總督府京畿道知事 湯村辰二郎
任朝鮮總督府農林局長(二等)
朝鮮總督府事務官(理財課長) 西崎鶴司
任朝鮮總督府鐵道局理事(二等)
朝鮮總督府府尹 甘蔗義邦
任朝鮮總督府京畿道知事(二等)
朝鮮總督府事務官兼朝鮮總督府中樞院書記官 新貝肇
任朝鮮總督府全羅南道知事(二等)
朝鮮總督府道事務官(京畿) 佐伯顯
任朝鮮總督府府尹(京城)(二等)
朝鮮總督府道事務官 下飯坂元
任朝鮮總督府事務官(二等) (米穀課長)
朝鮮總督府稅務監督局長
任朝鮮總督府專賣局事務官(四等) 國分 [illegible]
(大邱局長)
朝鮮總督府道事務官 小池泉
任朝鮮總督府稅務監督局長(三等)
(光州)
朝鮮總督府專賣局事務官 [illegible]
任朝鮮總督府道事務官(三等)
(全南內務)
朝鮮總督府事務官 [illegible]田正洪
任朝鮮總督府道事務官(三等)
(江原內務)
朝鮮總督府農林局長 矢島杉造
同 學務局長 富永文一
同 鐵道局理事 澤慶治郎
同 全羅南道知事 松本伊織
依願免本官(各通)
朝鮮總督府鐵道局參事 田中保太郎

任總督府道事務官(四等)
總督府道警視 [illegible]
任總督府事務官(六等)
總督府事務官 富山修
任總督府專賣局事務官(五等)
總督府道事務官 兵頭[illegible]
任總督府稅關長(三等)(釜山)
總督府專賣局事務官 齋藤[illegible]
任總督府道事務官(四等)
京畿道警部 原田一郎
任道警視(七等)
總督府稅關官兼總督府事務官 藤原時三郎
任總督府事務官兼稅關官
(學務局長心得)
任總督府秘書官(三等) 近藤[illegible]一
道事務官 山地靖之
任總督府事務官(四等)
(理財課長)
稅務監督局事務官 原田大六
任總督府道事務官(四等)
(上海特派員)
道事務官 坂上滿壽雄
任總督府遞信事務官(四等)
(遞信局電氣課長)
遞信事務官 倉島至
任總督府稅務監督局事務官(五等)
(大邱稅務監督局長)
道事務官 岸本淸人
任總督府稅務監督局事務官(六等)
(大邱)
總督府事務官 一杉藤平
任總督府道事務官(四等)
(黃海道警察部長)
稅務監督局事務官 鳥山進
任總督府道事務官(四等)

(忠淸南道警察部長)
郡守(慶南) 宮崎茂三郎
任總督府道理事官(七等)
(慶南)
江原道屬 川田兵右衛門
任總督府郡守(七等)(慶南)
道理事官 田中淸次
任總督府稅務監督局事務官(六等)
(平壤)
道視學(全南) 三上[illegible]
任總督府理事官(七等)
(黃海道)
總督府屬 片山一郎
任總督府道視學(七等)
(全南財務課長)
府尹(木浦) 增田道義
任總督府專賣局事務官(四等)
(平壤專賣局長)
郡守(公州) 山本實
任總督府府尹(五等)(木浦)
忠南警察部忠南小作官補 池田淸義
任總督府郡守(七等)(公州)
道理事官 阿部達一
任總督府事務官(六等)
(總督府外事課新京派遣員)
總督府屬 秋山昌平
任道理事官(六等)
(江原道)
樺太廳事務官 上野武雄
任總督府理事官(五等)
(咸北)
任總督府道理事官(七等) 小泉弘
(全南)
總督府屬 高平駿
任總督府山林事務官(七等)
(山林局在勤)
江原道警部 正岡[illegible]一
任總督府道警視(七等)
(咸南高等課長)
京畿道警部 佐佐木淸一
任總督府道警視(七等)
(昌德宮警察署長)
京畿道警部 稻田[illegible]生
任總督府警視(七等)
(木浦署長)
平南警部 豐島陞
任總督府道警視(七等)
(江原道警務課長)
道警視(仁川署長) 黑澤猪平
任本町署長
道警視(昌德宮署長) 二瀨二二
任仁川署長
道警視(本町署) 本田八郎
同 成富文五
同 冲德五郎
依願免本官(各通)
稅務監督局長 芳賀文三
鐵道局參事 石崎依永
總督府事務官 水田直昌
勅任官으로써 待遇(各通)

人事·集會

▲山田忠次氏(遞信局長)四日午後十時京城驛發馬山、鎭海、釜山으로出張하야 七日에歸任豫定
▲今井賴次郎氏(電氣課長)四日밤三週間豫定으로東京으로出張

八面鋒

◇普通電話七割減、公衆電話四倍增、丈夫一言重千金은 녯말이오 丈夫一言金三錢。
◇載寧明新學校、有志의出捐으로 高普計畫이確立 더운날爽快한消息。
◇미슌關係四校、死活線上에서彷徨、하나님의意思는 아닐지니 人子여 좀더努力하라。
◇西班牙軍政權을 英佛兩國은拒否한다고 拒否한다고 떠드는것이 存在를認定하는事實。
◇英米佛三國通貨協定을 英米가모다 維持키를希望 佛國은『아-멘』만하면 그만인가。
◇積極的意圖로 國際收支를改善하겟다고 大藏大臣學第一頁에 써잇슴직한말。
◇寺刹境內의 夏節風紀를 團束하라고嚴達、姿態의風紀는現狀觀望으로 可할지。

本紙定價改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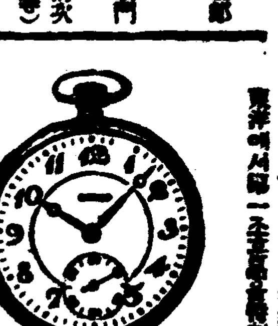
最近 新聞用紙와 其他 諸原料가 顯著히 騰貴하엿슴으로 七月一日부터 本紙 定價를 左와 如히 改正하옵니다。

其實 減頁도 생각해보앗사오나 內外多端且複雜한 此際에 報道陣을 縮少하는것은 讀者諸彥의 平素 期待하시는바에 報答하는 所以가 못될것을 밋고 그대신 價格을 改正하기로 하엿사오니 저의 苦衷의 잇는바를 諒察하시와 倍前 愛護 하시기를바라옵니다。

一個月 金壹圓貳拾錢

昭和十二年七月一日

東亞日報社
朝鮮日報社


時計、貴金屬 寶石類、眼鏡、銀器 記念品 메다루 다이야몬도
仲庭時計商店 大阪九條通二丁目八一 電話西(四七)四三〇七番 振替大阪八二一四一番 商品送呈 郵券五錢封入

冬物 羅紗洋服荷揃 大衆向 三ツ揃 オーバ ズボン 詰衿上下服朝鮮人向 レンコート
大阪市東區谷町二丁目十八番地 田中宇商會 電話東三〇三五番 店頭掛引二限り定價表進呈

人絹綿布端切各種卸 ◉モスリン綿ネル、絹ポプリン本セル金巾、四綾、朱子、人絹 新規小賣開業者에게는 懇切히指導합니다
大阪府南區瓦屋橋東詰大阪南局第一三號園 津村合資會社 電話南二四八九番 振替大阪三八三三番 商報送呈見本은五十錢要(切手)

錢入 袋物現金問屋 株式會社 廣島屋本店 大阪市東區博勞町一ノ二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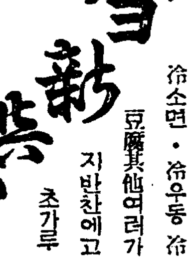
紳士向 ワヰシャツ カッター ノーネクタイシャツ 品質優良 加工絕對優秀 申込次第品質見本營業案內送呈
製造卸 野井集商店 大阪市南區順慶町四

全鮮에서놉흔名聲과함께 品質優良으로風靡하는 ゼスター 高級萬年筆을 卸廉價提供
大阪市北區都島本通四丁目十二 澤井商會製作所 電話東七九〇九番 振替大阪二壹二八四番 (カタロク新版進呈)

ハーモニカ (蝶印高級) 蝶々バンド ピツクアツプ 川口蝶超特選
發賣元 大阪市西區新町南通四ノ六 吉川樂器店 電話新町三二九四 全國各樂器店及百貨店에서販賣함

朝鮮向本絹、人絹、綿布、交織、
合名會社 森田嘉商店 大阪市南區長堀橋交叉點西一丁

食料紅 オブラート バター 製菓材料 菓實香料 商報贈呈
大阪市西淀川區大仁本町二 西本商店


今 新興 からし 冷소면·冷우동·冷豆腐其他여러가지반찬에고 초가루
今 新興 蕃椒粉 고초가루 밀국수·우동·豆腐 其他여러가지반찬의 고초가루
釜山 山西商店 〃 阿部本店 京城 辻本商店 〃 吉川商店 平壤 桑田商店 〃 江口商店 鎭南浦 山七商會 新義州 中山商店 〃 重枝商店 元山 小野本店 羅南 西村商店 咸興 德元商店

今 類似品이만히잇사오니 商標에注意하시오 月美人印 カレー からし コシヨー 製造本舖

朝光七月號發賣中

鳳山탈춤座談會·米佛蘇中領事館生活內幕·金玉均後嗣訪問外時事實益의

論文과 實話小說等滋味나는內容 興味津津한記事滿載

七月號가 거이다 팔[illegible]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振替京城五八七八番·定價[illegible])

暗中謀策決議飜覆

北長老宣敎會總會表裏兩面記 ❷

회의의경과는 극히 미묘하다 전일기록한바와가티 소위폐교파와 인퇴파가 주장을엇연히달리하고잇다는것이 회의를 좌우하는중대한 근거가되여잇고 또이러한분파가 북장로조선선교회의력사이기도하다

이가티하야 회의가열린지 륙일간에 선천(宣川)의 신성학교만은 다소성질을달리하야 종래운동이든 재단법인기성운동을일단진행시킨후 다시검토키로하고 그외의 경성의경신(儆新)、대구(大邱)의계성(啓聖)、신명(信明) 세학교는 래명년부터 인퇴한다고하야、일단인퇴파에서 어느정도까지 승리를어든듯하엿던것이 하로밤사이에 정세는극히변화하엿다

◇

죽밤사이에 폐교파에서는、중간파 획득에상당한 암중활약을한모양으로、전일에결의를 하엿든문제를 회의의최종일인 칠일일일에 다시상정하기로되엿다 그러면 그보다먼저

一、일일오전에 신성학교문제가상정되여

신성학교는 수년래로 잇슌회의설비에의한、토지건물과 기타설비를 이십오만원으로치고 그외에그곳 조선인측에서 오만원을거두어 삼십오만원의 재단법인을 조직하자는운동이잇서 조선인측의성의가 상당히 표시되엿섯슴으로 이는 다시그운동을진행할수잇는대로 진행식히어서 그결과를 선천스테슌회와 원미슌회교육부실행위원회에서 연구조사케한후 미국본부에 승인을엇기로하자고 결의가되엿다

一、경신학교문제에 대해서는전일의 결의에의하야 그인퇴방법을 잠간토의케되엿섯다 즉 경신학교는 안아김씨문중(安臣金氏門中)과 전자에 교섭이잇서 그간에는 경성교육의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찬성이되엿고 경성스테슌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찬성되엿고 또미국본부에서 파견되엿든 스테본박사와、레버、또다쓰홀무도찬성하엿고 어번총회의위원회에서도 칠명이 전부찬성하엿든것이다 안의 내용이란것은김씨문중과 미슌회와의 협동경영이라하야 학교의 경비문제로경영난이 생긴다면 경비를부담하고 토지건물기타설비는 미슌회소속대로두어 종교학교의 면목을 두기로하엿다가 미슌회에서 완전히 인퇴할때에는 김씨문중에서 그전부를 상당한부담(홍은지까로매수하던가 새로설비하던가하야) 미혜 인계하려는것이엇다

◇

이가튼 안까지 일단결명이되엿슴때 폐교파에서는 전일의 결의내용을들어 재론에、부치엇다 그결과는 전일밤 중간파에 대하야 암중활약을하엿든 효과가잇서 결국 경성의 경신과 대구의 계성、신명의 세학교는

一、래년부터신입생까지에인퇴한다

一、그전에 금년십이월이십일까지에 세학교에대한 적당한인계방법이잇다해도 각스테슌회와 전미슌회교육부실행위원회의연구조사를거처 다시 미국본부의 승인을 어더야한다

는 결의가 일일오후세시까지성립되엿다 이안은두가생각하여도 이안의 내면에숨어잇는 의도가어데잇는가를 짐작할수가잇다 즉

一、정일의 결의에 대해서다시 일변총단속식히고 그우에까다른운 조건을면가지나 부치게되엿도 그뜻이 어데잇는가를짐작할수잇다

一、또래년봄까지에 신입생모집까지 안키로하야 단연인퇴한다는보고 금년십일월이십일까지에 적당한인계자를 구하게한다는것은 인계식히다는 태도에어느정도까지의 성의를가젓는가를알수잇다

즉 한학교를 인계한다면 단십만원이나 그런것으로 될수도업고 수십만원내지 사오십만원은잇서야할터인데 압호로 반개년에 그런인계공작이 원만히되리라고는 생각키힘든다

그뿐이 아니고 인계를식힌다면 적당한인물과 재단이란것은그들이 어떤표준을가지고잇스며또 그조건은 어떤것일까하는것도 생각하여야할것이다

—계속—

宣敎會總會席上서 討議된延專問題

元校長의背後財團關係에樂觀說도傳하나

大方針決定되면亦是追隨?

어번 평양에서 열리엇든 북장로선교회총회는 기왕조선에서시설하엿든 교육사업의 인퇴에극히 중대한결의를하야 선교회로서는 압호로 단기간내에 사업을 전면적으로 인퇴할듯한태도를보이어 전도가 극히주목되는데이번에 당장문제되여 어떤결의형태까지보건은 경신(儆新)、계성(啓聖)、신명(信明)、신성(信聖)등의 네학교이나 이번회의의중요하게 론의된것중에는 경성의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가잇다 현재 연희전문학교는 남북장로회와、남북감리회의 합동경영으로되여잇고 또기지와건물기타설비만은 재단법인(財團法人)으로되여잇다 그러고 기지와건물들속은 재단법인으로되여잇서연희전문학교의 교유사업이외에는 달리사용될수업슴으로 선교회에서 언퇴를한다해도 기본재산의 처리만은 총독부의규정에버서난처리는 못하게되엇이나 전기와가티 북장로회가 남장로회와 보조를 가티하야 교육사업에서 총인퇴한다면 연희전문학교도 당연히 문제가된다

현재연희전문학교는 기본자산은 전기와가트나 경상비는 약십륙칠만원중 그중에서 십수만원은 미국에잇는 연희전문학교재정위원회의 손을거치어 오는것인데 그중에서도 북장로회게통으로 나오는돈이 대부분이엇다 또현재연전에서 시무중인교수기타 직원중미국인 교장원한경(元漢慶)씨이하 대부분북장로계통이다 그런데 이번총회의경과로보아 북장로회가 교육사업에서인퇴할것이 적극화한이때에총인퇴가 착수된때는 연전에서도북장로계통의 재정부담과 소속의원의 인퇴가 당연히 따라올것이다 이에 이번총회에서도첫날부터 폐교를 전제로한 전권위원임명여부문제가 사오일간을두고 론의될때 벽두에 연희전문학교에대한 문제가 중대하게 론의되엿섯스나 결국은 전기세학교에서 선교회가 인퇴한다면 연전문제도 당연히 따라올문제로 토의의결말만은 짓지안코 그대로 무더두엇스나 압호로 연전경영문제가 더크게론의될것은 목전의 일이다

또일부에서는 현교장 원한경씨의 백부되는분이 미국에잇서큰재산가이어서 원교장의열성으로연전은 문제안될듯이전하나 선교회의대방침이 이상과가티 진행된다면 원한경씨의 배후의재단만을개별하야 보기어려운일론이라고 관측되고잇다

世醫專은自立可能

補助金杜絶되어도別無影響

이상과가티 연희전문학교가 경영상 북장로선교회의 재정상부담과 서양인측인원의문제로 중대화한다면 경성의 세부란쓰의학전문학교(世醫專)도 문제될것이 사실이나 세전은 기본재산과설비가 재단법인으로 되여잇서조금도 동요될것이 아닌동시에직원도 교장이하 대부분이조선인이 차지하고 원만히일을진행식히고잇슬뿐아니라 미국서 오는 보조라는것은 불과수만원이고 그외의 모든경비는 부속병원의 수입으로 지탕되고 잇서충분히 자립하여나갈 상태인관계상 선교회에서도 아직은문제로하지도안코 또압호로 문제가그러케 버러질속도 하지안라고관측되고잇다

延專의恩人

언더우드翁逝去

昨一日 紐育에서

현연희전문학교(延專)교장 원한경(元漢慶)씨의 부친되시는분으로 연희전문학교의창설을 위시하여 여러학교의설립과 경영에막대한 공헌을남긴 고언더우드(故元杜尤)씨의 백씨로、원두우씨의사업에는 오늘까지 큰힘이되여온、미국뉴욕에잇든『존·티·언더우』씨는 이일아침뉴욕에서 별세하엿다고 삼일 오전원한경씨에게 부음이왓다 이미고인이된『언더우드』씨는 금년이팔십일세의 고령으로 일쯕부터 지개가출중하야 거대한실업가로서 그아우되는고『언더우드』씨의 사업에는 언제나 도와수어 오늘까지 조선에 던진금액이 약사십만불의 거액에 달한다 또 오늘까지라도 연희전문학교에대하야 일년에 최소한도로 오천불의 도음을주어오고 또미국에적립하여둔 연전의 기본금에도 거액을 차지하야 조선교육계에는 큰은인으로 되여잇다 그리하야 그아우되는분의사업을 도음는 뜻은 령질되는현교장 원한경씨를 적극적으로도와 압호로도 그 방면의 기대가 크든터이다 (사진은 별세한『존·티·언더우드』옹)

愁心中에잇는 元漢慶氏談

백부님의 부음을바든 원한경교장을 전화로차즈니 대단히수심에떠운음성으로 아래와가티말하엿다

아침에전보만을밧고 아직자세한것을몰라 궁금합니다 생각하면 백부께서는 돌아가제아부님이 조선나와일하시게되면서 적지안흔 도옴을하여왓슴니다 지금까지도 연희전문학교를위하야 마음을만히써왓슴니다 설어운말이야 해서멀하리이까 아마나도 곳미국드러갓다와야 할것갓슴니다 하여튼 조선과는 인연이깁헛 뗀

벌거숭이男子

알고보면… 기막힌事情

삼일오전 아홉시경에 시내봉래정(蓬萊町)일정목 미택(米澤)전당포에 이십여세의 청년이들어와서 돌연 입고잇던 양복우아래를 버서재처서 오원오십전에잡혀가지고는『사루마다』와『와이샤츠』바람으로 선선한 얼굴로서 거리로나가서 그부근을배회하고잇는것을 서대문서원이발견하고 본서로 데려다가 취조한결과 그는산구현 대도군(大島郡) 사는 대산주시(大山周市)(三七)라는 청년으로서 수년전부터남양(南洋)지방을 방랑하다가일단고향에 돌아갓스나 이번에다시 취직을하려고 아는사람을차저서 지난달 이십륙일 수원(水原)으로왓스나 취직도 뜻과가티 되지안코해서 경성려관에투숙중이던바 려관주인이 밥갑을 독촉함으로 단한벌입고잇던 양복을잽혀서 그돈으로 밥갑슬물고 갑싼옷을사입으려던것이 배가곱하서 밥옷사먹고 나니까 수중에돈오십전밧게 남지안허 이도저도 못하야 사루마다바람으로 거리에서 머뭇거리고잇다가 경찰에붓잡힌것을 방금그서에서는 풍기문란이됨으로그대로보낼수도업서 그신원등 여러가지를 엄밀조사중이다

꾸중듯고 少女飮毒

이일오후 열시경시내 죽첨정(竹添町)삼정목일백팔십이번지김영식(金永植)의 손녀 김용봉(金容奉)(一七)이라는 소녀가 자기집부억에서 양재물을먹고 자살을 도모하야 고민하고 잇는것을 집안사람이 발견하고 부근 고려(高麗)의원에 입원식혀생명은 건젓는데 원인은 자기어머니에게 꾸지람을듯고 메를마즌것을 비관한것이라한다

마눌도적

절기를노리는 도적―철원군 북면룡학리(鐵原郡北面龍鶴里)태생 김인녀(金仁女)(四五)는 이튼날아침 아홉시경 부내종암정(鍾岩町)이십구번지 압해서 우차에실고가는 마눌삼백오십뿌리나 훔처가지고 팔러도라다니다가동대문서원에체포되엿다

六月下旬의降雨量

平年보다못처적다 (仁川觀測所發表)

【仁川】륙월이십일부터 삼십일까지의 전조선적의기상통계를보건대 전반(前半)은 역시『오호츠크』해 일본해 본주(本州)방면에 우세한고기압(高氣壓)이체류하야 잇서동부는 거개냉습(冷濕)하고서부는 고온(高溫)이형편이든바 이십륙일부터 양하강하구(揚子江河口)의 저기압이 북동진(北東進)하야 중부이남에는 다소 강우가잇서 한발의우려를 다소면한듯하나 기온(氣溫)은 인천(仁川) 중강진(中江鎭) 신의주(新義州) 성진(城津) 지방은 평년보다 일도가놉고 강릉(江陵) 원산(元山) 지방은 일도가 야튼편이라는데 십일간의 각지 우량은 다음과갓고 평년에비하야도 보편적으로적은편이다

十日間各地雨量과平年比較表

▲濟州一三、五미리(三〇、七미리多)▲木浦二六、四미리(四六、九미리小)▲釜山八一、一미리(一七、二미리小)▲全州三八、五미리(四〇、一미리小)▲大邱三三、三미리(三六、〇미리小)▲秋風嶺一八、七미리 ▲仁川三五、一미리(二三미리小)▲京城六八、五미리(一四미리多)▲江陵四一、六미리(四、五미리小)▲平壤五三、五미리(二三미리多)▲元山六八、六미리(二二미리多)▲新義州四、三미리(四一、六미리小)▲城津一五、七미리(一〇、一미리小)▲中江鎭四三、九미리(〇、七미리多)▲雄基二二、九미리(二二、三미리小)

同胞村四處襲擊

食糧多數를掠奪

【咸興】일일새벽에 함남도 대안에서 이주동포촌이 습격당한것만 네건이나된다――그중의주요한것을보면 일일오전령시쯤십팔도구덕영동(十八道溝德英洞)에는 김일성(金日成)의일대 백모(白某)가 인솔하고잇는 약오십명의무장단이 습격하야와서 동리사람들을 일체 출입식히지안코 감금한후 조선인 리치한(李致漢)등 여섯집에서 저녁밥을강요하야먹은뒤에 그동리집집을돌추어서 조(粟)다섯말 전분(澱粉)일곱말을 강탈하야가지고 오전세시쯤에갓는데 갈때에 근일대부대(大部隊)가옴겨올터이니 그때에는 군량으로매호 조(粟)두말식을 준비하야두라고 위협하고도라가다

일일오전두시쯤 십륙도구소덕수리(十六道溝小德水里) 십가장(十家長) 리중철(李重喆)등 다섯집에 아오영(?) 一부하 사십명이 습격차 □□(麥粉)전분들을 다수히 빼아서가지고 가버렷는데 이외에 다시 두군대가 습격당하얏스며 이러케극히 자심한출몰하랄로 주민들의 동요는극히 심하다

天氣豫報

槪況 低氣壓은 天津附近에잇고 움시기지아니한다 그로因하야 南滿洲로부터 西北國境部에는 비가오고 北朝鮮은흐리고잇다 高氣壓은 本州東方海上에잇서 朝鮮도 그圈內에잇고 中部以南은 개이고颱風이 南洋方面에나타낫스나그狀況은 不明이다 臺灣과 琉球諸島四國의 南岸은 흐리고日本內地는 개이고 樺太는비가오고잇다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와明日은 흐렷다 小雨가잇스며 京畿全道도갓다

昨日最高 三〇度五
同 最低 一八度一
今朝最低 一九度一
今日正午 二八度七

嫌疑업는敎徒들은 今後로續續釋放

三日에于先四名을故鄕으로돌려보내어

"惡夢"깨인그들의善導가問題

白白敎事件取調一段落

지난 이월십륙일부내동대문서고등계에서경기에착수한 백백교사건취조는어미 일백오십일을계속하야 그동안 사건내용의취조도 피살자의검증으로맹활동을한결과 요사이에이르러겨우 사건관계자로동서에검속되남녀교도백여명의 하나하나에대하야 교도로서의활동정도、살해등 범죄의관계유무가판명되게되엿다 그래서 동서에서는 삼월부터 교도로서 오히려간부들의 협박과 착취에서 허덕이엇슬뿐이오 범죄에는 하등관계업는 순진한 피해자를 석방하기로 결정하고 어날은 위선강원도 세포(洗浦)에서 잡혀온 안태전(安泰全)(？)외 세명을 멀리고향에서 올라온 친족들에게인도하엿다

멀지안흔 장래에 군수 도지사 무엇이나 마음대로 될수잇다는 희세의 살인마 교주 전룡해(全龍海)(？)의 엉터리업는수작에미처 처자를 뺏기고 재산을 탕진한 그들이 사개월이넘는 류치장생활에 과연 육체만은 보잘것업시 여위엇스나정신은 무서운악몽(惡夢)에서 깨여난듯이 참회의 구든 결심과희망에 넘치는 태도로 오래동안살고잇든동서를 작별하고 어러부튼땅을 밟는 그들이 오늘에야 처음으로 드는 한여름의 불명이가튼 태양도 그들에게는오히려 기쁨에 넘치는것갓해 보엿다 동서에서는 여로서 범죄사실이 전연업는것이 판명되는대로 계속하야 석방할 방침이라고하는데 제일곤란한것은 그들의 대부분이내노아야 갈곳이업는것이다 더욱지금류치중의 삼십여명의녀교도들은 그대부분이시부모남편을 간부들에게 빼앗긴 가련한희생자로 석방해야갈곳업는그들의 선도방법에 대하야서는 경찰부와도 섭중협의중이라고한다

白白敎主의 사合逃走劇

백백교주 전룡해(白白敎主全龍海)에게 초인적 정력소(精力素)를 제공하고잇든 사슴이 다러나다가 본정서원에게 붓잡혓다

부내 앵정정(櫻井町)일정목십구번지에잇는 백백교최후의 본부에서 교주 전룡해가 정렴을 보관(保管)하노라고 기르든사슴은 교주가죽으다음 한가한세월을 보내는중 이일오후 다섯시쯤에 집을뛰어나와 황금정전차길을 따라 동쪽으로 다라나는것을 본정서원이 자동차로 추격하야 겨우 체포하엿다한다

溺死體

이일오후일곱시쯤에 한강인도교아래서 흰바지저고리에 힘센동화를신은 조선인청년의 익사체가발견되엿는데 주소성명은알수업스며 년령은약삼십세가량되여보인다고한다

國際舞臺에進出할 蹴球界의五勇士

蹴球朝鮮의 名聲을 짊머진金容植君이 伯林올림픽에 單身出場하야 비록個別競技이면서도金君의活躍은 斷然頭角을 나타내이어 世界舞臺에 빗나는 第一步를 드디엇거니와 三年後로迫頭한올림픽東京大會는 勿論이요明年巴里에서 열리는 世界蹴球選手權大會(東洋豫選은明春上海에서)와東洋大會를압두고 日本蹴球協會에서는 그强化策으로每年國際競技에 出場시킬代表陣을編成하는 意味로 이번에 第一次로 朝鮮、關東、關西의 各地區에서 三十九名을 뽑아냇는데 그中에는 旣報한바와가티康基旭(HB)、裵宗鎬(HW)、朴奎禎(FB)(以上全普專)、李裕瀅(HB)(全延專)、金容植(HB)(早大)等五選手가選拔되여 또다시世界舞臺에 出場할 機會를짓게 되엿다 그러나 五名이 選拔되엿다고해서全部가 巴里大會에 遠征할수는업슬것으로 合宿練習의結果를보아 第一陣과 第二陣을 編成하하야 第一陣은 巴里大會豫選에 第二陣은 大阪에서開催될第二回東洋大會와 때때로 遠征하는外國팀과의 國際戰에도 出場식힐豫定이라한다

(寫眞은 上으로부터 康基旭、金容植、裵宗鎬、李裕瀅、朴奎禎 諸選手)

海軍機墜落 搭乘者二名殉職

【豊橋電話同盟】삼일오전여덟시십오분경 애지현 악미군이랑호압촌(愛知縣渥美郡伊良湖岬村)굴절소학교(掘切小學校)부근에 해군기한대가 추락되어 탑승자이명은 순직하얏다 대빈(大濱)비행련습소의 해군기인듯하다

○定評잇는!詳解漢和大辭典!

緊急(分)大投賣斷行

定價三圓八十錢을 特別景品付로 單只一圓二十錢(大投賣)

註文은至急으로要

現代出版社

大景品 いろは引新辭典

名觀相家

開運의好機는只今!

聖龍先生의判斷은如神

【성룡선생】

京城相學院長 聖龍先生은科學的관상학의大家로서

京城相學院

朝鮮總督府專賣局製造

蔘精

官製人蔘엑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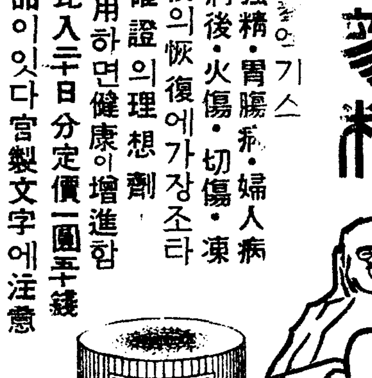
强壯·强精·胃腸病·婦人病 産前·病後·火傷·切傷·凍傷病後의恢復에가장조타 多年確證의理想劑 連續常用하면健康이增進함

·二〇瓦入三十日分定價一圓五十錢

·類似品이잇다宮製文字에注意

·申込次第文獻送呈

全國著名藥店百貨店에잇다



發賣元 京城長谷川町京城ビル 朝鮮總督府專賣局製造 蔘精元賣捌株式會社

箕子廟에 趙道洙氏의 特志義捐

全南谷城郡竹谷面槃松里奇宇一氏家에箕聖遺影을數千世奉傳하얏다가 右氏가全北高敞(元興德岩)으로搬移할際하야前住所地에箕子廟를建하는中財力이不贍하야竣功키難하더니順天郡住岩面大九里趙道洙氏가 嘉聖의特志로瓦一切代金四百圓을出義하야大事를竣完함에萬分幸甚이라더라

海水浴後에

흔히자칫한不注意로부터오는 中耳炎、蓄膿症의原因이되는、耳鳴귀질알는것、코병가튼것은、初期인때에얼는 獨逸ポリツエル博士가處方한驚威잇는本劑로

耳鼻の病に

大木耳鼻藥

二十錢·三十錢·五十錢·一圓

全國有名藥店にあり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東京神田鍛冶町

蓄音器祭

祝

蓄音器 레코-드 三圓 어치사 실때마다

抽籤券一枚及粗品進呈

蓄音器発明六十週年記念

金剛山名招待大賣出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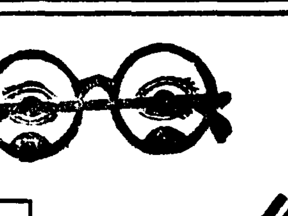
期間 自七月七日至七月十六日 (一ケ月間)

抽籤發表 京城三越 十二日

招待日 京城發 七月二十八日 京城着 八月一日 往復共寢台付

主催 京城蓄音器商同志會

詳細는府內各蓄音器店에서



セブランス醫專病院

京城驛前 電(本)五二二二

檢眼無料 限學生

◎急告

滿蒙特產物商會

早漏防止

性器强大藥

巡查看守 (講義全書)

朝鮮及滿洲警察官志願者는本會發行講義全書修了에依하야絶對合格

入會費無? 京城府林町八二番地

鮮滿警察學會

빈대장당전멸「빈대팔진미」(八珍味)

세계적 신발명

全人類明朗譜!!

南◎京◎虫◎遂◎全◎滅◎!!!

빈대가전멸된다!!!

세계적신발명 (南京虫全滅)

일년중 제일 귀차는 여름! 더운것보다 우리의 피를빠라먹는것보다 가려워서 한잠도못자고 병이들어 죽게되는지긋 지긋하고무서운『빈대』시절이왓다 아ー무서워라빈대는우리인류의(人類)공동의적이다(共同之敵) 자기혼 자만잠을못자고귀중한피를 빨니는것이아니라 전가족이 다ー죽을지경이오 더구나 어린가여운 자녀들의피를 막빠러먹는다 참으로전인류(全人類)가다ー빈대때문에죽을지경이다 여름이되면 엇던집이던지 방마다벽이 새빨갓케피투성이가된다 누가보던지 창피하기가짝이업다 그창피는고사하고 제일잠을못삼으로 일도못하고몸이피곤하여말으며 병이된다사람은침식이라고 잠을 못자면영웅열사도못견듸고 제아모리강철이라도 소용업다 일각갑이천금이라고(春宵一刻値千金) 한숨의잠이 천금이다 그러나이빈대를완전히 전멸식힐수는업섯다 정말우리네인지가(人智) 아직도미급하엿다 이것을퍽이나 유감으로 생각한다 십여년전에 엇던 일유명사 오입쟁이신사가(一流名士) 엇던 기생집에를갓섯다 그런 대그기생은 서울서일등 만하든 기생으로서 장안일등 명기엿다 그기생의 집을갓다 온명사의 말이 정말걸작이고 우수엇섯다『○○이는 장안일등명기인만큼 란죽으로 만늘데그려』그게무슨 말이야 그는화초기생인대무슨란죽을(蘭竹)그릴줄아 나? 아니야 정말새빨간붓으로사방벽에다 가란죽을여지업시막그려노앗드구면 하하하 빈대피로 자네정말걸작일세그려 빈대를 눌너서죽죽그어노앗스니 그것이란죽일세 그려올치올치그말이자연그기생을 멸시하는우수개말이되고말엇다 아ー서울 일등기생도빈대 때문에가치가막떠러지는 구나 아ー원수의 빈대언제든 지몰사의철퇴를 내릴터이니바더보아라 엇덧케하든지이밉살스러운빈대를 업새보겟다는구든결심을하야 십여년을고심연구한결과 과연・천하에전무후무정말 그야말로미증유(未曾有)한독특한절대비방을 발견하엿다 이것이야말로유일무이한것이다 인제는완전히전세계의빈대를확실히씨도 업시전멸하게되엿다 쾌재쾌재라제아모리 모질고악독한빈대라도우리의위대한과학과 진보한지식에는하는수업도다

엇지하야전멸되나?

빈대가 사람 냄새와 똑갓혼피냄새를맛고 나오면 사람피가안닌피보다 더조흔 팔진미(八珍味)를양것먹고 빈대집으로 도라가면 그빈대전신에 무든팔진미가 빈대보금자리에 가득차게되는대 그팔진미의 냄새만다른 빈대가맛터도 죽으니 처음에먹고간 빈대한마리는 물론 대소빈대와 빈대알까지 전멸몰사하는참신기하고도 괴상하고도 고마웁고 자미스러운 빈대의팔진미를 신발명하엿다 이빈대팔진미로 하로에 당장에 전멸하오니이 여름만 전가족이 잘지내는것이아니라 영원히 편안하게 행복스럽게 세상을 보내게되오니 이러한 행복이 또어데잇겟습닛가 일시라도 속히주문 하야쓰시고 혹모르는분 이잇거든 인류애(人類愛)의견지로 가여운 동포를 구제하여주시도록하시오 이우에 더조흔 적선은 또업스리라 그뿐더러 이팔진미는 빈대의외 무슨 해충이든지 다ー죽고 벼룩、진데기、배채무등、채소벌네、도속사합니다 사람에게는 아모해도업습니다 팔진미『갑』은 제일적은것이 일원이오(一圓)이원삼원까지 잇습니다 방이 만커든삼원어치만쓰면 고만입니다 지방송료(送料)삼십오전 이오선 금이면 십오전 이오 경성서대문턱 제일큰 힌벽돌양옥 신기신성당약품직수입주식회사로 주문하시오 (만일에전멸안되면 엇더한 책임이라도 짐니다)또종래의 빈대홈이라든지 여러가지는 일시적이오 완전히 전멸안하며 홈은요집물가폭등으로 그전삼사배나됨으로 십원이상들고 도불충분하며 일시적이나이 빈대팔진미는 정말 여러가지로 가장리상적이다

책임권

빈대팔진미는 한번만쓰면 빈대가 아조씨도업시 전멸함으로 절대책임권을 드리겟습니다 그리고 전멸한후는 이웃 사람들께도 널니선전권고하 시와다시 빈대가올 마오지안토록하십서오 그리하야 이세상 빈대를 이팔진미로 완전히 멸종식힙시다 경성서대문 신기신성당약품직수입주식회사

팔진미를 써본분들의 자미잇는 이야기

별항에 벌서 그힘의위대한것을 증명한편지가잇지만은 시내에서쓴분들의말슴을 들어보면 이러하다 처음에 일원분을 방가에다 종이를접어서 사방에다 부치고 가루를 좀듯겁게 뿌려노앗드니 자고이러나보니 그럿케 만은줄모르고잇섯는 대원빈대가 전부나와 샛카마케몰사 전멸한것을 보고하도옹 굴짐으로 이웃집에가서 이야기를할나고하니 역시그집에도 몰사한 빈대를쓰러내면서 하는 말이이야말노 공자님보담더고맙다고『누가발명하엿는지 보선커레나 양말이나 사다주엇스면하드람니다』다른것은 냄새만나고 잘안죽고 죽어도일주일이 상걸니는대 이것은단박에 전부다나와서 죽으니 정말유쾌하여요 하고말하더라

【문】당신은엇지하야그러케화색이조코명낭하십니까? 【답】『빈대팔진미』로빈대를 전멸식히고 오래간만에 밤잠을잘잣더니그런가봐요 사람은밤잠을 달게자야해요보약이 다ー무어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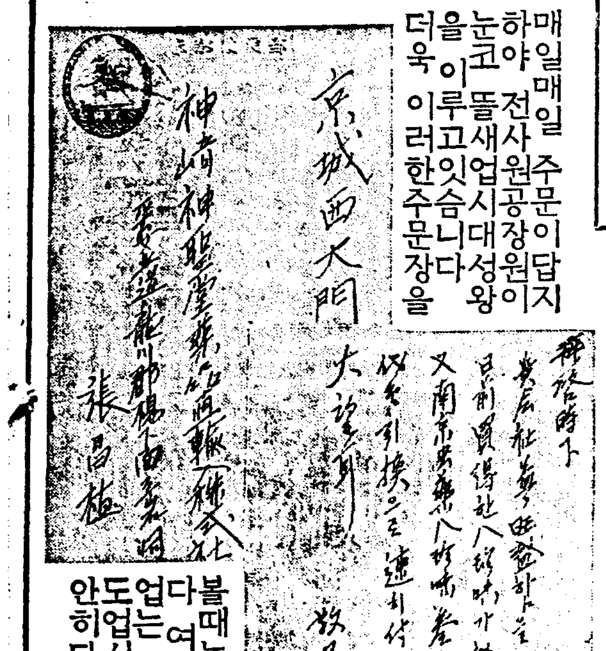
理想的!

빈대전멸에 대성공

代理店特約店募集

申込次第規定書送附합

매일매일 주문이답지하야 전사원공장원이 눈코뜰새업시대성왕을이루고잇습니다 더욱이러한주문장을



볼때는 참으로유쾌합니다 여러분께발표할수업는사실입니다 아조씨도업시 전멸식히시고 편안히단잠주무십시오

귀한애기빈대때문에 밤잠못자고피곤하야조는양은가엽고도애처롭다 웬수의빈대! 그래도또물너덤비는빈대들을보시요

001370

정가(價定)

방이한간이면 일원
방이삼간이면 이원
방이여럿이면 삼원

지방송료

선금 십오전
대금인환 삼십오전

결코일시적이아닙니다 아조씨도업시멸종하야바립니다

京城西大門入口 (제일큰힌벽돌양관)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三三四番 一〇七七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라디오

三日 (土曜)

◇午後六時三〇分(平)兒童劇「종달새」 平壤 반달會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指導 崔恩錫
◇同七時〇〇分 夏期課外講話 植物採集 梨花女高普 李德象
◇同八時 經濟解說 最近米國의物價政策 延專 林炳赫
◇同八時卅分 漫談「여름나그네」 黃材景
◇同九時(東) 室內樂 一、不安 二、배노래 오펜바하作曲 三、가보트 마르티니作曲 四、사구라사구라 齊藤秀雄編曲 六、세레나-데 토셀리作曲 七、農民舍 하르트만作曲 하-프 篠野靜江 플루-트 岡村雅雄 첼로 齊藤秀雄

第一放送

◇午後六時(城) 講演
◇同七時卅分(東) 講演
◇同八時(京) 靑田節
◇同八時一〇分(東) 小唄
◇同八時二〇分(名) 浪花節
◇同九時(東) 室內樂

四日 (日曜)

◇午後零時五十分 西道歌謠 一、執杖歌 二、平壤歌 三、小春香歌 四、제비歌 尹一枝 連 朴英愛
◇同一時二十分 女聲合唱 Y·M·C·A合唱團 指揮及伴奏 高鳳京
◇同六時卅分 하-모니카二重奏 一、軍艦行進曲…쇼-베르트作曲 二、戰人의行列…宋一九作曲 三、舞曲「西班의아가씨」…金坡園作曲 四、序曲「바다의酋長」…보일드作曲 金坡園 宋一九
◇同六時五十五分 修養講話 安寅植
◇唱劇調의밤◇
◇同八時 春香傳中 廣寒樓景槪 金如蘭
◇同八時四〇分 春香傳中 新官使道到任하는데 丁貞烈 鼓手 韓成俊
◇同一〇時 歌謠 一、春眠曲 二、길군樂 金蕉紅

第一放送

◇午後〇時五〇分 羅西亞音樂 崔竹香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一時二〇分(東)講談
◇同六時三〇分(歌)
◇同七時三〇分(城)舞蹈中繼— 京城明治座
◇同八時五五分(城)小唄
◇同九時〇五分(東)新內
◇同四日 一時二〇分 女聲合唱 一、眞珠이슬 二、희망의노래 三、도라지꼿 四、내主는살어계심 五、每日아참 主의恩惠 六、主여오날이맘속에 Y·M·C·A合唱團 高鳳京

七月五日(月)

◇午前一一時一五分 婦人時間 여름料理의材料選擇 尹德熹
◇午後〇時〇五分 첼로獨奏 一、로망스·상·파롤…민스作曲 二、자장가…불크作曲 三、마주르카…샤르벵카作曲 四、로만스…골터만作曲 五、살타렐로…同 피아노伴奏 J·B·스투데니 本宮伸光
◇同六時 野球試合實況(國語)(豫備日)
◇同六時 (京)英語講座(五之四) P·D·파-킨스
◇同六時三〇分 兒童と先生の時間 一、問答 稻の害虫(瀧本發七第二十二課)四年生 二、朗讀とお話 野口英世(瀧本發十一第二十三課)六年生 舟橋普通學校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夏期課外講話 여름太陽 中央高普 趙炳俊
◇同八時 常識講座 總督府事務官 金秉旭
◇同八時三〇分 一、夢金浦打鈴 二、寒遊歌 三、興打鈴 金玉仙
◇同八時四〇分(東) 바이올린獨奏 一、로만스 F長調 二、三、四、베-트-벤作曲 大笒 金永根 피아노伴奏 三宅洋一郞 西川滿枝
◇同九時 野談『上亥日演出』 申鼎言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東)
◇同〇時二七分(東)日米交換放送
◇同六時 講演
◇同六時三〇分(大)物語
◇同七時三〇分(東)講演
◇同八時(東)映畵劇
◇同八時四〇分(東)淨瑠璃

家庭

어디로 가야 할까 바다와 산의 비교

애기의 체질을 딸아서 결정하자 미리부터 피서지선택

☆

이제 하기방학(夏期放學)도 얼마 남지 안 햇는바 더운 날 아이들을 그대로 집속에 처박아 둔다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물론 형세가 그러케 못되는 것을 억지로까지야 할 맛이 업지오만은 웬만만한 댁에서는 어디로든지 보내시는 것이 조흘것입니다. 그러나 산으로 보낼찌 바다로 보낼찌 위선 그 것을 잘 고르지 안 해서는 안 됩니다. 모처럼 피서로 보내는 터에 처소를 잘못 골랏다가는 건강이 나허지기커녕 도리어 못해 지는수가 업지 안습니다. 애기네의 체질을 보아서 산으로 보낼아이는산으로 보내고 바다로 보낼 아이는 바다로 보내야 합니다. 그 체질을 감별(鑑別)하는 방법은 대개 아래와갓습니다.

×

바다는 산보담 자극(刺戟)이강합니다. 그 것은 물결人소리, 밀물과썰물, 염분(鹽分)광선(光線)등이 섭신에 대하야 자극을 만히주는 까닭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생각해서 바다로 보내어 조흘 아이는

(1)보통으로 건강한 아이
(2)중병을 치르고 난아이
(3)선병질(腺病質)의 아이

그러나 신열이 조곰이라도 잇는 아어는 바다가 재미업는중에도 결핵성(結核性)의 병에걸리어서 매일 신열이 오르는 아어는 더군다나 못씁니다. 또 그이외에도 삼출성(滲出性)의 체질이라고해서 조곰만 해도 몸에 무엇이 돗고 헌데가나는 아이가잇는데 그역시 바다는 금물입니다. 바다人가에 나서면 눈뿌나 그속에 뛰어드러가서 럼벙거리기를 조와하지만은 시간이 너머 오래서는 해롭습니다. 비단 약한 아이뿐이 아니라 아무리튼튼한 아이라도 그것만은주의해야 됩니다.

×

그대신 산은 바다와비교하야 한적한것이 별로자극이 적습니다. 다소 새소리 바람人소리 시내人소리 가튼것이 잇대도 그것은 그다지 문제되지안습니다. 이런조건을 참고삼아서 산으로 보내도 조흘아이는

(1)신경질로되야 조그만자극에도 민감(敏感)인 아이
(2)결핵성의 병에걸리어잇는 아이
(3)삼출성의 체질로 되야 바다人물이 해로운 아이

즉 둘러말하면 바다에 가기가 재미업는아이는 모두 산으로가서 맛당합니다. 산은 넘우 단조스러워서 곳 실증을 내게될지도 모르나 그대신 탈이 별로업습니다

일광(日光)의 자외선(紫外線)은 산도 바다나 마찬가지로 충분하고 공기도 산이 바다보담 덜 맑은 점은 조금도 업습니다. 물로 바다에는 오존이 풍부해서조타고들 하되 그것은 일리(一利)를 알고 일해(一害)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

상기와 가튼 이론은 오직 아이들에만 적용될 것이아니요 어른에게도 적용됩니다. 어른도 그 체질의 여하(如何)를 딸아서 피서지를 골라야 하는데 그조건은 아이들에 대해 말한 것이나 조금도 다름이 업습니다. 더구나 안악네들은 해수욕을 정도에 넘치게하다가 아래人배를 차게 하야 부인人병을 어더 가지고 고생하는분이 적지 안습니다. 바다로 가거든 해수욕을 주의하여야 할것으로 애초부터 바다로 가지 안는것이 무난치 안 할까 합니다.

朝陽幼稚園慈母會主催로 洋裁縫講習會

(양복 짓는 법 가르치는 회) 오는칠일부터열하로동안

시내 연지정에잇는 조양유치원(蓮池町朝陽幼稚園)의 자모회에서는 본사 학예부후원으로 오는칠일부터 십칠일까지 열하로동안그유치원 안에서 양재봉강습회를 열기로 되엿습니다. 강사는여러분이 억히잘아시는 사계의 권위자인 임정혁(任貞爀)、양옥경(梁玉慶)두분외에 조수몃분인데 강습종목으로말하면 남녀아동복 갓난애기 양복 자리옷 샤쓰여러종류, 남녀아동유희복 압치마, 해수욕것테두르는것, 남녀통학복, 부인네들 집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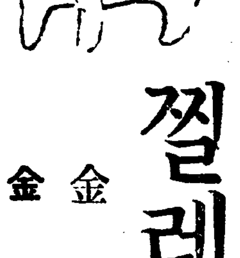
할미꼿

풀수페 수머잇는 할미꼿
어린애쩍에도 이름은 할미꼬치다。
누가 놀릴까바서 부끄러운지 꼭 고개만숙이고잇네。
아니야 속이깁고 점잔해서 그러치。

(글쓴사람 권위형)

長篇小說 찔레꼿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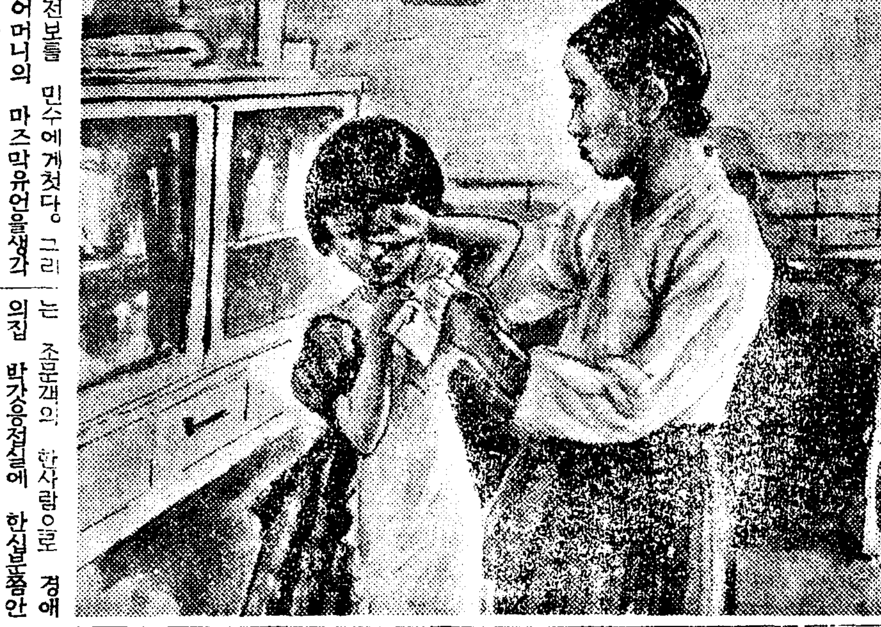
金末峰作 金熊超畵



꼿은피엿건만(四)

그날저녁 경애어머니는 자기집으로 도라왓다. 그러나 그의눈은 영영감겻고 그의입은 기리 다처진채 평소에 자기가 거처하든 안방으로가서 평안히누은 것이다。폭석한보료대신 딱딱한 칠성판위에누엇는 경애어머니는 불평한마디업시 단잡이든것가티 누어잇다。

경애는 복잡하고 슬픈중에서도 『어머님은 오후여섯시반에 아주 떠나섯습니다 경애』



이런전보를 민수에게첫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즈막유언을생각하고 울엇다。경애는 평소에 어머니를 사랑하엿스나 존경하지는안헛든것이다。함부로성을내고 자기기분에만마처 만사를해결하려는 히스테리칼한어머니를 경애는 어떠때는 속으로멸시까지 하엿다。그러나 어머니가 떠난지금 그는맘으로 웨첫다。

『어머니! 당신은 진실로 나의 위대한 어머님이올시다』

하고 경애는 민수와자기를 결합시켜려든 어머니를 생각할때 빼가녹는듯이 어머니가 고맙고 그리워지는것이다。그만큼 민수는 경애에게잇서서 갈노픈존재가 되어버린것이다。사변전에 Y청변에게 순정을짓밟힌채 우울과저주속에서 살아온는경애는 민수를발견하는 순간부터……민수가 정순의애인이 아니요 오빠라는설명을듯는 그 시간부터 참으로 경애의세계는 완전히달라저버린것이다 민수가 잇는이상 경애의인생은 영원한 봄이다 어머니가도라가셧다 그래서 슬프다 그러나 그러케십장을 쪼개는듯한슬픔도 민수의 부드러운 우슴아페서는 봄눈맛는 겨울과가티 뒤人거름질을하지안흘수업슬것이다

이튼날 오후두시쯤되여 민수는 조문객의 한사람으로 경애의집 박강공전설에 한십분쯤안젓다가 도라갓스나 물론경애나 정순은 그를보지못하엿다。사흘째되든날 정오(正午)에 경애어머니의 영결식(永訣式)은끗낫다 검은리본을 느리운 화환이 오십여개나 영구차(靈柩車)아플진행하고 영구차뒤에는 조만호씨와 상주인경구이하 영남영길과 경애、경자、경옥일가그외친지들의 탄 자동차가이십여대딸엇다。

이것이 경애어머니가 만석군의 딸이요 실업계의명성 조만호씨부인으로써 세상에서밧는 마즈막대접이리라 영구차가 떠난뒤에 정순은 갑작이고요해진 집안을 살펴보앗다 집 안팟글 소제하는 하인들도 잠잠히말이업고 가간히 그릇을 덜그럭거리는 소리만이 슬픈적막을 깨칠뿐이다。

정순은 생각지말자생각지말자 하고 고개를 흔들면 흔들수록 또다시 그괴로운 인생문제가 정순의 뇌중추를 씻흘듯이 파고드려오는것을 어찌할수업는것이다。

『인생은 이러케덧업시 간단말이지 어데로? 가는고?』

정순은 생각하엿다 경애어머니가 얼마나그어린아이들을 사랑하엿는지 그리고 남편의사랑을 직히기에 얼마나열중하엿든것을! 그러나 그모든것을 마치 아이들이밧게서 작난감을 가지고놀다가 저녁에 어머니가불르시면 그애끼고 소중히여이든 작난감들을팽겨치고 안으로드러가고만다는 어느시인의말과가티 과연세상이란것은 사람들의노는 작난터가아닐까

작난터! 작난터에살면서 사람들은 너무나진검하고 작난을 하기위하여 언제나 생명을내거는사람들의존재가 새삼스리 애닯허젓다。

정순은 가슴에손을대엿다。그리고 벌떡벌떡고동하는 심장의 소리를 들어보앗다。

『나도 나도 그언제인가 반드시죽을날이 오겟지……』

그러나 정순은 고개를끄덕엿다 민수씨 민수그이의손을잡고 숨을거두는자기는 진실로 평안하고 화평스럽게 눈을감을수잇스리라고 생각을 한까닭이다。

어데서 용길의 우름소리가 들리는듯하여 정순은 고개를들고 복도를 내다보앗다 할멈의등에 잡이들엇든 용길이가 깨여서 엄마를차즈며우는것이다。달래다못한할멈은 아이를따라 가치울면서 정순에게로 온것이다。

『오—용길이 착하지 이리와요 선생님 안아주께』

하고 아이를 바더안엇스나 눈물이 괴인 용길의눈을 드려다보는 정순은 아이의얼굴에뺨을 대고 호덕호덕느껴울어버렷다。

정순은 아이를 달래기위하여그보다도 자기자신을 달래려고아조 짤막하고 쉬운 이야기를하나시작하엿스나 오늘 멀리어머니의죽음을알엇는지 용길의울음은 좀체로 그치지안는다

『쓰르르롱 쐬—』

팔월도기우려 인제차침 가을이 가까워오는지 매암이의 소래도 애조를띄고들려온다

정순은 상노아이를시켜 기어히 회나무에올라가서 매암이를 잡어오라하여 우는용길을 겨우달랫다 저녁때가되여 묘지로갓든 일행이도라왓다 집안은 또다시 곡성이진동하고 하인들은 음식을채리기에 정신이업섯다 영길 영남、경옥은 사람들을헤치고

『선생님!』

하고 정순에게로 와서안진다

『우리도인제 커서자라고 그래조혼사람이되면 잇다 어머니 게신데로 갈수잇는데……』

정순은 아이들을다리고 조용히 자기방으로가서 이야기를들려주엇다。

어머니에게로 갈수잇다는 말이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위로를밧는것이엿다。

『예밥자면 엄마헌테로가는거요 응 선생님!』

하고 못는것은 영남이다。

『몃밤이며야 아주여러해를지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경옥이가자신잇게 대답을하는것이다。

『안선생님 식당으로 가시지안흐시렵니까?』

하고 슬픈얼굴에 억지로미소를띄우고 경구가 가까이오는것이다。

『이리와 용길아』

하고 경구는 어린동생을 바다안아하엿스나 용길은 정순의 가슴에서 나오랴하지는안는다

경구는 용길을안고잇는 정순이가 바로자기가 귀국기렴으로 정순에게보내준 마돈나(聖母)의 그림과가티 생각이되여 그는 일순 정순에게 한정하고시픈 충동을느끼엿다。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絕版되기前에

七月 女性 發賣中

한때話題의女性後日譚
登場人物— 劉英俊·崔義順·趙慶喜·玄德信·成義敬·金福實·黃信德·崔恩喜·金仁洙·金永義·許貞淑·金源珠·朴順天·白貞鎭·李貞喜·金一葉 外諸氏

땀의敎育(女性讀本) 李殷相
朴淵瀑布와龍女(名瀑傳說) 車相瓚
洛東江의뱃搖籃(鄕土有情記) 李源朝
隨筆 로맨스아닌로맨스……金晋燮
절당종소리……毛允淑

詩歌 蒼穹 야극 東海·綠陰 金達鎭…… 七月의故鄕 李貞求……

音樂鑑賞講座 金管

□世界女性展望 □內外珍聞 □女性界消息
□家庭메모 □알어둡시다 □웃지맙시다

設問 一、宅에서는 용돈을 두분중에 누가 마터쓰십니까 二、애들의 잘못은 때리십니까 말로 타일느시나요 三、손님대접은 집에서하십니까 밧게서 하시나요 四、家族全體의 娛樂은 무엇으로삼으십니까
孫晋泰·李克魯·梁柱東·兪鎭午·趙東秀·車相瓚·李秉岐·李熙昇·金基鎭·柳致眞·鄭燦英·張文卿 等諸氏

表紙·揷畵·鄭玄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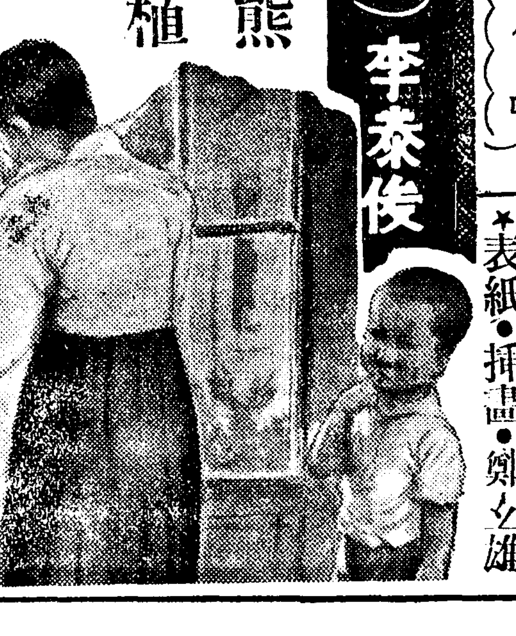
七月創作特輯
中篇小說 코스모스피는庭園(終篇) 李泰俊
유모어小說 男便의辯明……金澤熊
短篇小說 停車場近處……蔡萬植
小說 사월이……盧天命

實話 시집사리三年 洪恕姬
漫文漫畵 女學生스켓취……林鴻恩

家庭讀本
夏節兒童衛生……張文卿
夏節兒童遊戲服……任貞爀
夏節料理數種……閔惠植
結婚化粧秘法……吳淑根

屛詩·出帆……盧天命
白信愛·朴龍喆·金晄燮·安懷南·辛夕汀·金尙鎔·金晋燮·朴慶浩·許河伯

設問 一、어렷슬때남의것을훔처본기억은업스십니까 二、健忘症으로難處한경우를當한일은업습니까 三、두분이혹시싸호신뒤누가몬저말슴을하십니까 四、幼年時代에는어떤別名을들으섯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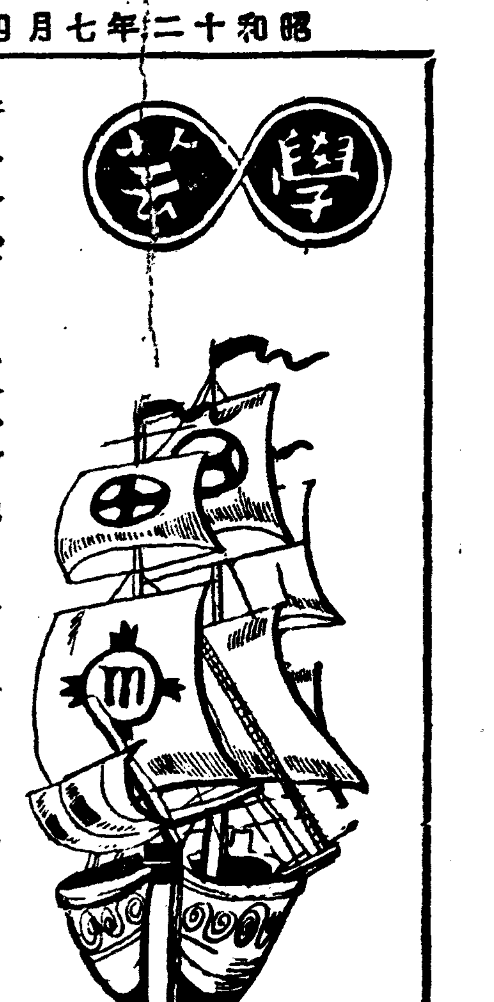
守節한제비(그夫人의一生) 申鼎言
家庭太平記(畫伯高羲東氏宅)
閨秀畵家鄭燦英論(女流人物評) 尹聖相
女性과宗敎(女性時評) 金元經

畵報 川獵。七月의表情。저녁노을。美의建設。가튼風景에실증이낫소。어여차 저라。낙시에마음을실고。避暑는이러케。

京城各女學校女先生評判記 進明篇(2)

定價二十錢(送料二錢) 振替京城五八七八番
速히注文하라!

學藝



文學의大衆化와言語問題
—論議의現實的基盤을닥기爲하야—
③ 韓植

이에잇서서 다시우리가 注意하지안코면안될것은 이때까지의 世界文學史上에잇서서 한文學을 確立한사람들 例컨대 로시아의 푸-쉬킨、고-고리英國의 쉑스피어

—獨— 逸의괴-테등은、모두、그內容에잇서뿐만아니라 實로그形象에잇서서도 그나라의 그言語를 使用하는大衆으로부터 愛讀을할만큼한言語表現을 가지고잇섯스며 따라서 그들은 무엇보담도먼저그言語를 樹立하엿다는事實이다。그들은 그後의 文學發表의큰길을 닥금으로서 文學大衆化의基礎를 세웟든것이다

우리말로쓴다는意味에서 우리들의 大多數의生活感情을 表現하는 우리文學의 特徵을 成立케 하는것이며 따라서 우리말을 使用하며 읽을수 잇는 民衆全體를 우리文學의 讀者로서 獲得할수가 잇는것이다。우리는 인제야 비로소 積極的으로 우리들의 文學의發展과 確立을 企圖하지안호면 안될것이며 그럼에는 반드시 우리말을 읽을줄 아는 모든民衆을 讀者로하며그들에게 우리文學을 普及化하지 안호면 안될것이다。또 그러기爲하여서는 무엇보담도 먼저우리말의 正當한樹立이 기어코必要로되며 緊急한일로 되는것을 알必要가 잇는것이다。言語表現이 업고는 文學이업다。

그러면 現代의 우리말은 大略어떠한것이며 또어떠케되고잇스며、그것은 果然文學的言語로서 훌륭한것이며 우리들의

—現— 實生活을 表現하기에 適合한것이며이대로 放置하면 어떠케될가하는等의 諸問題에 對하여서는 그歷史的地位와 文化上 使命에關하므로써 民衆文化의 指導者들의 選手인 우리文學者들은 果然얼마만한認識을 가지고 잇는가。

이외가티 文學建設의 基礎로서 文學의大衆化의 前提條件으로서 文學의樹立發揚으로써 現在의 環境과 그에따른言語使用의 混亂으로써 우리말의今日의 姿勢가 如何한것인가 똑똑히발키며 正當히論議하고잇는 文學者 批評家가멧사람이나될까 나의寡聞한 탓인지는몰으나 從來의 우리文學人이 이에對하야서 적어도無自覺하나 或은積極的이아닌 우리말에對한 徹底한 나추리즘을 遵守하여 왓다는것만은 事實이아닌가한다 우리가 先祖로부터 遺産으로가진 文化가 잇다할것가트면 그中의第一큰것의하나는 아마 우리말이안일가한다。勿論 그러타하야 이미旣成된우리말을 예적그대로 固守하는것이아니라 그것을 發展시키며

—豊— 富히하여야할것은더말할것업다。何如間 文化의擁護、휴-만의舊論등을抽象的으로絶叫한들 무엇하랴。우리말에對한擁護、認識、發展을企圖함이 곳 우리들이具體化하지 안코면안될 如此한問題의基本的解決條件임을 看過하여서는안될것이다。

朝鮮語文의研究와 整理에잇서서 作家들은 實際의製作에 잇서서 만흔情熱을 表示하고잇다할을 無視하고저하는바는 아니다。그보담 더한層 나아가서朝鮮語文에對한 認識 見解 實務等이 얼마나 深化한것이 잇스며 또言語體系와 一般文化와의 關係에잇서서 우리말의統一整理에對하야 率先하야 리-드하지안코면 안될自己의處地를 얼마나重게 評價하고잇스며 그에對한研究 體系가 얼마나 잇는가。

우리말의 歷史를 回顧할때에 여러가지의 感慨를 가지지아니치못할것이다。世宗及諸文制定委員들의 感嘆할만한 天才的創造로서 우리가 世界어느나라글짜에지지안코 자랑할수가잇는 그리하야 世界에서 가장進步한表音文字이며 훌륭한 音韻을 옳히 똑똑하게 發音할수잇스며 父音 毋音、子音등의 組織이 自然스럽게 聯繫되여잇는 빗나는우리 正音을 그後의 支配階級들의

—漢— 文崇拜와 漢字禮讚으로 말미아마 그使用을 局限하엿스며 또燕山君가티 士大夫는 諺文을 使用치못하게하는 禁壓을 다하엿든것이다。

그後漸次로 中國에게 政治的隷屬이된以上으로 文化的隷屬을당함으로因하야 우리諺文의 合理的發達과 우리말로된 作品과歷史등이 하나도完全한것이 生産못되엿다는것은 참으로 千秋의 遺恨事라고 아니할수가업는것이다 그리하야 今日에이르러 新文學文化의바람을呼吸한지 三十年以來에 눈이돌아갈만치 變遷하는 生活과 走馬燈가튼社會의 急劇한諸相은 또한 우리말에對한大衆的統一과 標準語의規準 普及化등이 讀者、先覺者의 注意를 끄을면서도 어떠케 統一하며發展시킬수업는 形便에 이르럿든것이다 그리하야 우리말의 混亂은 極히甚하엿다 고할것이니 겨우 普通學校의 敎科書에 依하야、또는 만흔 漢字語를 厭譯한것가튼말을 그냥 使用(總督府編纂의 朝鮮語辭典에 依하면 總語數約六萬의四分의三이나 漢字語로 推算할수가 잇다고한다)되여왓스며、特히마춤法、文法등에잇서서는 十人十色의아나키-狀態에 빠지고잇섯든것이다。그리하야 過渡期의 社會의言語로서 또最近의 急速한外國文化의 移入으로써 無定見한外國語의混入과 粗雜한新語의 濫用등으로써 世界어느나라言語에 比하야서 더욱奇觀인 支離滅裂한 混亂에떠러저잇섯든것이다。

漢詩

落花 押春 桐岡 考選

開城府高麗町六〇五番地 起山 許運

夜來風雨夢醒頻
曉見飛花滿四隣
谷有訴聲鵑泣血
園無緘色蝶傷神
樽前可惜紅顏女
鏡裡堪歎白髮人
青帝猶嫌歸駕促
故留巖下數枝春

江郊畫帖 ② 沈亨求

第一日의 行程은 東小門박기다。貞陵近處로 좀 깁숙히 드러가면 엇덜던지몰라도 東小門박기란 나가티 綸畵에는 門外漢의눈으로보아도 索莫하기 짝이업는곳이엿다。

畵具를 멘채로 더드머 더드머 온것이 新興寺入口。내생각가태서는 기왕 이까지왓스니 新興寺境內로 드러갓스면 佛宇尼舍의 蕭疎가 생길만한데도 잇슬듯한데 엇전지 入口探石場近處에와서 畵伯은 두리번 두리번하더니마는 얼마되지안는 소나무 그늘미테다가 三脚椅子를 펼치고 좌정을 하신다。벌서 멧해를두고 깨여먹엇는지 山모습을 거의 다 이즈러지고 너레석 떠러진 날카라운 石稜이 여기 저기에 빗죽 빗죽한 探石場이란 아무리 보아도 殺風景이엿다。

그러나 이러한 殺風景을 그리든 붓곳이 한번 너레석우에 위태롭게 서잇는 두어포기의 소나무를 그렷슬때 畵面에는 맛치 一陣의 서늘한 바람이 지나간드시 어울렷것은 다 어울렷다。

바로 이때 저쪽에서는 사람이 두손으로 旗ㅅ대를흔드면서 우리를 비키라고 소리를 지르기에 그림도 다되든판이라 불불이 收拾해가지고 산비탈로 數十步나 갓슬지음에 탕하면서 火藥터지는 소리가 들렷다。그리고 연달어 서너방이나 탕 탕 하더니마는 그餘響은 멀니蒼空으로 퍼지면서 한참동안이나 살어지지안헛다。

이 그림을보고서 그餘響을 듯는듯한는 사람이라면 可히 더부러 그림이야기도 할수잇다고—(文·李潮)

武藏野通信
—◇建築·衣裳·知性◇—
(二) 崔載瑞

第二信 東京에나린지 사흘만에 나는 完全히 混亂에빠지고마럿습니다。

『누구나 처음보는 都會에와서 첫날밤을 호텔에서 지내든 經驗을 생각하야보아라。

그것은 무서운渾沌外에 아무것도아니다。그러나 이나그네가 都會가주는無數한 刺戟가운데서 어떤것엔反應하고어떤것엔反應치안허서 自己流로 都會를 知覺함에따라서 都會는 그의아페 次次로秩序를提示한다。』

이것은 언제인가 존·듀-이 著書에서 읽은한 句節입니다(말은 좀 틀릴는지도모르나)제가 混亂에 빠젓다는데는 東京이 世界에서 몃재안가는 大都會라는것과 제가 아직도 東京에익숙치못하다는것도 勿論 原因이되여잇겟지요。그러나 그보다도 東京 그自體가 벌서混亂의뭉치라는것이 더큰原因이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선 제일먼첨 우리눈에 띠이는建築과 行人의衣服만하야도 나는 그多種多樣함에 놀라기보다도오히려 世界엔 아마 요것밧겐標本이 업서슬가하고 놀랄만치그것은 形形色色입니다。이가지가지색의 建築과 衣服안에드러잇는사람들은 그感性과 知性에잇서서도 亦是(表面的이나마)形形色色일것입니다。브룬노·타우트아-놀드·광크가튼外國人이 純粹한 日本의建築을 讚揚하고 現代日本의外貌를 嘲笑한데對하야 이곳有識階級이 적지안흔 不滿을 表明하고 잇는것만을 보아도 짐작할수잇습니다。

淺草에가보니『日本的인것』이 대강어떠한것이나함을 짐작할수잇섯습니다。그러나 日本의現代産業文明이 이곳서 發達되리라곤 생각할수업섯습니다 그곳에 개미가티 늘려잇는緣日商人들이 돈푼이나 모와가지고 좀 組織的으로 商業을經營하라면 不可不 歐米式으로 轉換할것이고 좀더나가서 丸之內 비지네스·센타-로進出할것입니다。日本이 資本主義의發達을 圖謀하는限 外國文明의 模倣은 避치못할運命이 아닐까요?

어제 谷川徹三氏를 訪問하얏습니다。마침 法政學校 Y氏도 와서 對談中이엿섯습니다。(알고보니 이분은 當人은알지안흔 大端히 愉快한분이엿습니다。)

이야기는 그림에서 建築으로 옴마갓습니다。東京驛의 붉은 벽돌이 처음볼때에 하도숭업드니때가 오르고 次次 보아나니까 지금은 그럴듯이 어울린다는말 요새 새로 建築된 빌딩中에선中央郵便局이 제일아름답드라는이야기 銀座어데엔가가면 옛날日本집그대로 아직도 남아잇는 旅屋이잇다는이야기等等……한참듯고잇다가 나도 한목끼여볼생각으로 小平村에잇는 津田英學塾의建物이 米國式과 東洋式을加味하야 大端히 보기조트라는 이야기를하얏드니 美術愛好家인 이집主人은 저윽히 섭섭한表情을띠우면서『나는 오히려 東西洋式의 折衷이라는것을 排斥합니다 이러케되다면 西洋化를 徹底히 하야 東京을 깨끗하고 환한都市로 맨들밧겐 별수업겟지요』하고 對答하얏습니다。

日本式이든 西洋式이든 좀더어떠케統一하야 旅行者의神經을 너무混亂시키지말게 하야주엇스면하고 나는 혼자생각하엿든것입니다。

아까도 말하얏지만 Y將校는 大端히 滋味잇는분이여서 우수운이야기가 만히잇섯습니다。三原山에 求景가든이야기 『다-기-』집에가서 싸인을바더오든 이야기… 그 中에도 걸작인것은 『다-기-』가 某理髮所에 男裝理髮을 갓드니 無慮數百名의 팬이 殺到하야 理髮所는 門을닷치고 交通巡査가 出動을하고하야 기어코 이 히-로인은 理髮所뒷문으로 도망을갓다는 이야기입니다。(이것은 그後 몃칠안해서 新聞에도낫스니 事實일것입니다)

有閑마담이 한로에 千餘圓式 돈을써가며 書家게재를 열싸고논다는 이야기와한께 의 愚鈍한頭腦로선 理解할수업는 東京의 一面이엿습니다

女流作家의地位
—特히作家以前에對하야—
(五) 任淳得

옛날 에피메니데스라는 哲學者가 잇섯다。그는 現在에對한 모든欲望을버리고 洞窟속에서瞑想과 思索에 파뭇첫다。그의自制는 五十八年을 持續하여왓스나 말릴래야 말릴수업는 그의內部의 힘은 드디어 그洞窟을버서나 人間의生活의 波濤우에 나타나게하엿다。그는 生新한靑春을 어든듯이 生活의、地上에로 復歸하여잇다。

사람들은 그의文學的才質에 못이긴燥急한 開花를 必要하게 역이지안는다。勿論 사람들은 그의 作家的資質을 通하야서 그의 不斷한精勵는 自己自身과함께 發展시킬수잇슬것이기때문에 五十八年의文學以前을 必要로하는 에피메니데스가될것은 오히려우수운일이지만 그러나 에피메니데스의傳說은 우리들自身의問題를위하야 豊饒한 示唆를준다

文學은 말하자면 우리가 理想하는生活 充實하고發展된生活또는 善과情熱과福祉를가추운生活 이러한生活에對한 모든熱望이思想乃至想像에잇어서 直接的으로實現—直接的으로 感情되는實現을 目的하는것이다 그러므로 作家는 例하면 甲順이는 乙洙를 사랑하엿다 하는境遇에 甲順이와乙洙의 世界는 달팽이껍질속의 世界와가튼孤立한世界의 住人이되여서는안니된다。甲順이와 乙洙뿐이아니라 乙洙로부터 甲順이를 빼아서가는 돈잇는丙喆、其他丁姬、戊植等等이 作家혼자가 想像하는 多樣하고 詳細한 事行으로構成한다하드래도 우리에게問題되는것은 決코그런것이아니요作家가 生과精神의調和的인綜合을 그作品을通하야 自己의本質로하는가안하는가 그作品을通하야 作家의感情이讀者에게 그의歡喜 그의悅惚을 傳達하는가안하는가 또는 作家가 創造한人間들을通하야 內的인소리에依하야 움직여지는 存在로서 個人을發見할수잇슬뿐아니라 더强力한 決定的인소리 社會의소리가 울리여나오는가안하는가 問題된다。

이에서 우리는 女流作家로轉落되여진 婦人作家를 問題삼을때 婦人作家를 圍繞하는 客觀的諸條件이 그러케 만드럿슴을 보는同時에 婦人作家自身이 그들의 서러운運命을 釀成한것에 想到하지안할수업다。

作品의 多樣性에關하야 생각할때 作家가 단지 외로운사람의小世界 조그마한風景 些細한事物을 無視할것이라는것을 意味하는것은아니지만 그러나 女流作家選集을 들추어볼때 열다섯사람의作品은 모두가 微微한것、쪼고마한것、너머나 沼沼한社會의물결로부터버서난 江邊의 어여쁜 조악돌만이 取材되여잇기때문에 그것이 한사람한사람에게向하야 重要한問題거리가 되는것이다。그것들은 倭小한精神만이노리는世界의것이요 決코婦人作家의 特徵的인世界의것은아니다。

그地位로부터 歷史的、現實的으로 由來하는바의 婦人의精神的溫度—傳統에依하야傳하여진 婦人의生活、運命、感情、性格、心理와 어느信仰과 想像의樣式 道德의 事物에對하는 特定한方法 밋思惟의方法—을通하야나온 敏感한바위 漢江의濁流는 彫琢되조금마한구슬 深谷에 조잘거리는 細流보다도 그들의 文學에잇서서 取材되기바라는바이다。보드라운微風 가을하늘의 코스모스의歎息보다도 쩡쩡 소리를내는 鴨綠江의解氷 그에뒤ㅅ니ㅅ는 봄꾸러움은水聲 한여름蒼穹의轟音、暴風、朔風에 抗拒하는 松栢 이것들이 더만히欲望되는바다。(完)

漢詩募集

題 芳草
押 生
(限七月二十日)

東京新劇界의概況
(下) 金承久

다음은 新劇과의 關係로보아 看過치못할 存在인 前進座、井上正夫一座를 한번홀터보고 이稿를 끄치기로하자。

井上正夫는 日本新派史上에 큰발자욱을 남기고온 人物이다。多少良心的面을 가지고 잇는사람으로 昨年에 中間演劇을 提唱하고 井上演劇道場 이라는것을 開設하야 新劇에 가까운新派(中間演劇)의創造에 努力하고잇다 그를爲하야 千田是也 村山知義 杉本良吉 八田元夫等의 新劇演出家들을 불러 演技指導를바드며 또한 레파토리-도 久板榮二郞 三好十郞 入木隆一郞等의 進步的作品을 取擇하고잇다。廢敗된 新派를 新劇의 指導下에 이가티 그水準을 引上하며또한 歌舞伎 新派의觀客에게 新劇으로의 다리를 것는 셈이니 이中間演劇의 意義는 자못크다고할것이다。

前進座—이것은 世界에서도 아마 그例를 보지못할 綜合劇團(?)으로 歌舞伎、新派、新劇映畵等 손을안대는게업다。이劇團의 目標는 大衆的演劇 映畵를 樹立하자는것이다。이劇團에서도 新劇演出家들을불러 演技指導를밧고잇다。

이러케 보아오니 奇異한것은 新派 甚至於 歌舞伎까지 新劇人의 손이뻐치고잇고 또 그네도 自發的으로 新劇人의 指導를 바라는現象이다。이것은 新劇이 小劇場에만 백혀잇다가 이제야 겨우 一般劇界또는 大衆속에 그基礎를 두게되는 端緖일것이다。그러나 하나看過치못할것은 井上正夫든지 前進座其他歌舞伎等이 新劇에서 배우려하는것은 單純히 藝術的慾望이라고는 볼수업는 그것이다。即 歌舞伎 新派의 觀客은 定式化된 그들의 演技와 內容에 실증이나고 무슨 새로운것을 要求하고잇다는 時勢의 推移에따라서 일어난 被動的現象이다 어찌되엿던지 반가운 現象이다

이가튼 現象에따라 新築地、新協에서는 大劇場〃안삼블〃을 意圖하며 只今까지 小劇場(築地小劇場은 定員約五百名)에서訓練한 俳優들의 發聲、演技를大劇場的으로 再訓練할 必要를痛感하는同時에 新協劇團에서는新宿第一劇場의經驗으로 自己네의 演技、發聲에 큰 缺陷을發見하고잇다。事實 恒常 大劇場에서 公演하는 前進座、井上正夫一座의 發聲과 新劇俳優들의 發聲과는 雲泥의差가잇다。

이가튼 過程을 밟으며 日本의新劇은 이제야 겨우大衆的基礎를 싸코잇는現狀이다。또하나 반가운일은 新劇團體의 映畵와의 提携이다。新築地劇團은 P·C·L 其他松竹等과 俳優들의個人契約이잇고 新協은 P·C·L과 團體契約을 매지고 俳優를 出演시키고 잇다。이現象은 新劇의 明日을위하야 반가운 일이다。

附—이외에 東京朝鮮藝術座를 쓸必要가잇스나 朝鮮藝術座는 解散狀態에잇다。東京에잇서서의 朝鮮演劇運動은 딴機會에 詳細히 적어보기로하고 여기서는 簡單한 消息만傳하야둔다。

圍棋對局譜 (4)

本社主催

白七段 廣瀨平治郞
黑二點置 任佑植

○ 49	甲의九	
● 50	丙의七	
○ 51	乙의七	
● 52	丙의六	
○ 53	丙의八	
● 54	丁의八	
○ 55	丁의九	
● 56	丁의十	
○ 57	戊의九	
● 58	己의十一	
○ 59	庚의十二	
● 60	己의九	
○ 61	乙의五	
● 62	戊의八	
○ 63	丙의五	
● 64	丁의五	

觀戰記 黑白雙方에 危機直面으로 差一手하면 抗坎이在前이라 愼重此際에 白이丁의九로斷하야 戊의九로 延立함을 黑이 己의九로 粘着은 精丁十年에 棋中之錐가 非特未見이다 白이先覺其妙하야 乙의五로移着하고 黑은戊의八로白二點을 摘取하니 如此境遇에는 互相知機人也-라하노라

第三回 全朝鮮男女音樂콩쿨

開催期日 九月下旬 申請期日 九月五日까지

曲目 二曲을演奏하되 一曲은本會指定曲을取하고 一曲은隨意로함
【聲樂】 DER WANDERER (放浪者)—슈벨트
【피아노】 IMPROMPTU(卽興曲)NO.4(作品九〇)—슈벨트
【바이올린】 CONCERTO (協奏曲)NO.6(B FLAT)第一樂章—로-데

參加資格 全朝鮮男女로하되聲樂은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二圓과伴奏料一圓을申請書와한께本社庶務部로交附함 (但한번申請한뒤에는申請金을一切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本社로부터 [illegible]·賞金을授與함

審查委員 金永煥 洪蘭坡 朴慶浩 玄濟明 桂貞植 金元福 鄭勳謨 朴泰俊 【順】

主催 朝鮮日報社

紙上顧問

【問】 左記事項을紙上顧問을通하야 細細히下敎하여주심을 바라나이다
一、朝鮮遞信局海員養成所住所
一、入學資格新上陸者上

【答】 慶南統營입니다 普通學校卒業程度면 入學됩니다(係)

【問】 저는 普校卒業生인데 文學方面으로 나갈려고하는데 文學에對한 敎授法이잇스면 紙上으로 下敎하여주심을 懇望합니다。(저는 다만 敎授法冊子가잇는지를 下敎하심을 비옵니다。)(海西一貧困少年文學徒)

【答】 그런冊은업습니다

信濃 天龍峽의 逆さ川의異奇함과 科學을超越한 深山藥草酒의効力
世上에는 科學의 理論을 超越한神秘的奇蹟이잇다

001380

三 急流中에하나인天龍川이눈과 구름의 日本알푸스 連峰下에伊那谷을南으로흘러急傾斜로縣河의 氣勢를 올리고잇는대、赤石山下의陣場峠에서 展望하면、그反對로北쪽이얏게보이고、北으로北으로、逆流를하는 것이뚜렷하게보이는대 예전부터『信濃の逆き川』라고불러、信州

七 奇異中에하나로헤이게되는대、그理由는、아직科學的으로 究明치안코도、理論을 超越한 奇異한 實로서觀光客이 모도 感心하고 驚異의視眼을보내고 잇슬뿐이다 이近傍이 即天龍峽이라 고부르는

名 勝地로서鹽澤家三百年家傳 養命酒의 特産地이다 養命酒는이山놉고물맑은海拔三千尺 仙境과가튼天龍峽의 天然自然의風土氣候中에、高山貴重藥草數種을配合함으로써醞釀이되엿고 他地에서는 絶對로만들수업는名物이니

深 山仙酒라고부르게되며貧血虛弱者나 胃腸이弱하고 瘦瘠한사람이나根氣가업고 頭腦가흐릿하고身體가느른하며倦怠하기 쉬운사람이나 腦를酷使하는 사람病後回復力이缺乏한사람 老衰로氣力이업는사람 血液循環이조치못한婦人等이貴重한滋養强壯劑로서朝夕으로한잔식

愛 飮을하면은身體의芯부터强하게되고、實로이보다더조혼것은업다고忌彈업시感心하야이德分으로이러케强健하게살이올랏고 健康이回復된寫眞까지添附하야禮狀을보내주시는분도날마다만히잇스며異口同聲으로 大好評이며 더욱더有名해젓슴으로何人을不拘하고이事實的인事實에體驗해볼것이다

滋養强壯劑로서
◆胃腸衰弱者 ◆虛弱體質 ◆强腦强精의目的 ◆神經衰弱者 ◆根氣薄弱者 ◆不眠喘息者 ◆呼吸器衰弱者 ◆疲勞倦怠者 ◆産前産後婦人 ◆貧血厥冷者 ◆後回復期等等

信州伊那の谷名産 鹽澤家傳 養命酒 製法日米專賣特許
携帶用一圓五十錢 大瓶三圓 德用四圓

◎全國有名藥店、百貨店、食料品店잇슴에 品切인때는便宜上東京出張所로注文하면 送料本舖負擔 代金引換으로送料實費로밧는다。

注意 類似品이잇슴 專賣特許鹽澤家養命酒의文字에特히注意하고사시오

信州上伊那郡[illegible]村大草 醸造發賣元 養命酒本舖天龍館
東京市澁谷區上通四丁目九番地 出張所 養命酒本舖出張所 電話靑山五三九八番 振替東京大八八五五番

小瓶進呈

貴重한 深山仙酒로서 芳香美味 향은 勿論 마시기도조흐믈 고저 養命酒試用小瓶을 一本식 無代進呈함으로 東京澁谷區上通四丁目九番地 養命酒本舖 出張所로 申込하면 곳 보낸다 또한 有名藥店에 養命酒實驗者의 感謝狀付寫眞帖이잇스니 參考로 一覽하시오

新富座

京城新堂町 電(本)五六七七番

◇七月三日부터三日間!! 土曜日曜祭日은畫夜三回 낫十二時부터六時까지繼續映 밤七時半부터始映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巨大篇 鐵人對巨人 近代野人…빅터 마크라크렌氏 主演 監督…죤·푸라이스토氏
여기에重量에크기가幅이넓고기픈가무시무시한리-즈에서高唱한다 이巨像의影響에잇슬리는아름다운女性의悲情!! 방정마진女子의아담스런자게란! 如何에支配力을使用할까!!
(파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人情劇 寶石과女賊 監督…죤·크롬웰 主演…가톨도마이켈·핸사·이스란데인크氏
◇PCL超大作全發聲映畫!! 現代劇 新婚うらおもて 監督…山本嘉次郞 主演 藤原釜足 岸井明

東洋劇場

七月一日낫부터 開演午後一時半 七時半
劇團 靑春座 凱旋公演 第一週
◆上演劇本◆ 林仙圭 作 悲劇『彷徨하는靑春들』 四幕五場
불타는사랑!애닯픈靑春!逆境의苦海!여기에펼처지는사람의아들로서의맘로서의맘지안코면안되는生活記錄!題目하여가로대『彷徨하는靑春들』……! 젊은 劇作家 林仙圭君은自身또한『彷徨하는靑春』의한사람으로써이한篇劇을써아내여려분아페펼처노ㅎ습니다! 名劇鑑賞의絶好機는靑春座滿洲遠征凱旋公演第一回의藝題에서獲得하소서
諷刺劇 南宮春 作 『호-ㅁ·스윗호-ㅁ』一幕

黃金座

全鮮第一封切

六月二十八日より七月四日まで

大毎	國際ニュース	11·30	2·10	6·40
現代劇	悅ちやん		2·50	7·10
マンガ	イロイロ	12·10	4·30	9·00
時代劇	修羅山彥 後篇	12·40	5·00	9·30

各席全部 大人50錢 學生小人30錢 小學生20錢

桃花劇場

電(龍)一三三番

◇六月三日부터特別三日間 公開每日晝夜二回上映 낫一時 밤七時半始映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파社超大作二十五週年記念名篇) 巨匠…세실B·데밀氏 監督作品 …日本版!!
開拓密話 平原兒 主演〈케리-·쿠-파-氏 진-·아-사-孃〉
荒涼한野心의天地다흔드는熱烈한闘志!熱火의魂!!開拓의大平原의建設의戰爭에흔들니는熱血兒의絶叫!!初夏의最高感激篇!!
◇마키노오-루·토-키版!! 時代劇 決戰幕神山 監督…牧野六氏 主演…澤村國太郞 大內弘氏 田村邦男氏
豫告=짝글에춤추는怪物=마쓰로키=新しき土=十字軍=祖國을직히는者=춤추는海賊=鐵人對巨人

光武劇場

◇七月二日부터三日間公開 每日晝夜二回낫一時 밤八時始映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파라마운트特作映畵 =三大映畵上映= 名篇『보제스트』後日譚 大史活劇 보사부루 게리·쿠-파主演
◆朝鮮키네마提供映畵 朝鮮映畵 젊은이의노래 羅雄、尹逢春 金蓮實 共演
◆平壤시네마特作映畵 朝鮮映畵 椿姬 鄭基鐸、金一松 主演
豫告=씨나락、街의風景、鐵路、말슴하서지요네!
往十里町 光武劇場

新興醴泉紹介版

慶北一位의穀物集散地 商業都로또活躍 本格的新興은只今부터

京慶綫工事驛에서 朝鮮慶北線을밟아서라고 約半時間남짓이東北高地點으로疾走하면山川이秀麗한背山臨流의新興都市가잇스니이것이곳醴泉이다듬은煉瓦建物이雲霄에소슨醴泉商事務所를 爲始하야官廳銀行會社大店舖等의最新式建物이整理된市街에櫛比하야 比야누가보든지新興氣分이넘치는都市이다한便으로는榮州奉化의穀物生產品과小白山脈의無盡藏의富庫卽鑛石木材藥草等物產이洪水와가티내밀고잇스며또한便으로는朝鐵을通하야全鮮各地로부터官鹽肥料海產物雜貨等屬이輻湊하야醴泉驛前에는何時든지貨物이山岳가티싸이어잇다여기에서大醴泉의建設條件이充分함뿐만안이라醴泉의商人은元來商人的見地에서勤儉을本位로하야 商權을남에게빼앗기지만니하는것이그特性이다그리하야富力으로보아서人口에比하여他地方에는곳과相對하드라도遜色이업다그리고七月一日부터邑으로昇格되어머지아니한將來에小開城이라稱號가혀되지아니하리라고밋는다

沿革

本郡은新羅時에 水酒縣이라 稱하다가景德王朝에 이르러醴泉郡으로 改稱되얏스며高麗元宗朝에甫州라稱하고顯宗時에安東郡에編入되얏다가明宗朝에다시基陽縣으로되야安東郡으로부터分割되얏다李朝太宗十三年에다시甫州라고하얏다가同十六年에醴泉으로다시命名하엿다隆熙元年에郡內化庄面東倉面을開慶郡에移管하고安東郡으로부터甘泉面을編入하얏고大正十三年에榮州郡으로부터上里面下里面을編入하야現在十二面으로本郡을構成하엿다

地勢와位置

▲地勢 는東經一二八度二四北緯三六度三七面積이四三方里二二九周圍三八里一八로形成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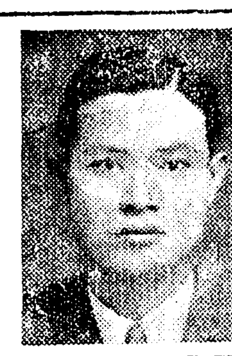
▲位置 慶尙北道의北部에位하야東은鶴駕山及脫行山을拒하야安東郡에接하고西는潁順江에臨하야開慶郡에接하엿스며南은洛東江을隔하야義城郡과尙州郡에接續하얏고北方의一部는榮州郡에境하고他一部는小白山住脈을分水嶺으로하忠淸北道와分界되엿다

逐年躍進되는 醴泉參業組合

醴泉의土種人蔘은約三十年前부터鶴駕山麓에栽培를試驗한結果產品이良好하고藥力이卓越함은實로他品의追從을不許하게되야人蔘栽培는그成績이逐年擴張하야昭和六年에는畢竟人蔘組合이創立되얏다그리하야約三年前부터現組合理事인林奉洙氏가責任者가되든後로는栽培에對하야一層擴張指導하는同時販賣斡旋을圓滑히하얏다

各界의重鎭들

인테리層代表者 金炫鍾氏



氏는일직이大邱高等普通學校를卒業하고不幸이先怙의禍에當하야累巨萬의遺產管理와여러가지事情으로不得己學業을中止하엿스나氏는斷然初志貫徹을決心하고爾來十個星霜에研究를거듭하야醴泉知識層의巨星임은一般이共認하는바이다뿐만안니라氏의高尙한人格과瀟洒한社交에는自然히醴泉事業界에牛耳를잡니잡을수업게되얏다
◇寫眞은 金炫鍾氏

德望잇는地主 安成鎬氏

氏는醴泉唯一의大地主로서昔年期小作料를決定할때에는大概가小作人本位로決定된다고한다그리하야氏의土地를耕作하는小作人으로서는氏을怨聲하는사람이업다하니可謂稱世의地主이다氏가經營하는安武商會는商業的利益그것보다도氏에게따르는老少人士의職業問題解決에지나지못한다고한다
◇寫眞은 安成鎬氏

圓滿한郡守 車化善氏

本郡郡守車化善氏는일즉이水原高農을卒業하고總督府農務課에在勤하다가未幾에곳郡守로任命되야慶北各郡을歷任하얏스며醴泉에赴任한지는아직日淺하나郡內職員이나一般郡民의首仰은자못크다氏는一見에風度부터地方長官의威勢가나타나며行政事務에는圓滿無缺을主限으로하야官民間에氏에對한讚辭은날노높하가는中이다
◇寫眞은 車化善氏

德望잇는面長 鄭寅鶴氏

氏는元來醴泉의德望家이오數十萬의財產家로서昨年에醴泉面長이更迭될때에一般面民의希望과支持에依하야自家家政이多事함에도不拘하고斷然公民的見地에서現職을보개되얏다氏가面長으로就任한後에面政에잇서서만흔功績이잇슴은周知하는바이다氏는貞厚한人格으로서一見에長者風이잇는사람이다
◇寫眞은 鄭寅鶴氏

明敏한手腕家 慶北道議員 李大一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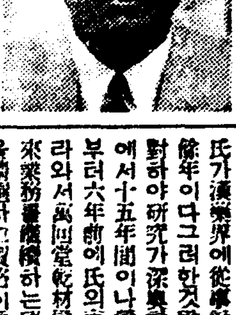
從容端雅하야坐談笑時間에相對의陣營를뒤집어노을能辯家요手腕家인氏는醴泉에서道議員으로當選됨이오히려晩時之感이不無하다醴泉의發展을爲하야氏의活動은자못크리라고期待된다氏는元來語學에天才가잇서서十七歲부터大邱財務監督局通譯生으로勤務하다가二十四歲에日本內地와中國方面에八年間이나放浪하면서特히語學을研究하엿다그후醴泉에도라와서代書業을하는一便靑年會幹部新幹會幹事等으로活動하다가現龍宮金融組合長으로今番道議員에當選되얏다
◇寫眞은 李大一氏

醴泉社會人氣者 李鉉琪氏(寫名脖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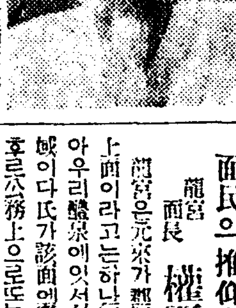
氏는일즉이釜山商業學校를優秀한成績으로卒業하고醴泉金融組合에勤務하다가醴泉產業組合이創立되자理事의椅子에안게되야慶北模範產組의成績을나타내이엿고在職中에慶北道評議員에無難히當選되얏스며其後道制改正과道會議員選擧에도最高點으로當選되얏스니氏의人格과手腕은可히알것이다또醴泉面長으로就任되야多年間努力하든中健康이좃치못하야昨年末에斷然職을辭하고現在修養中이다
◇寫眞은 李鉉琪氏

杏林界의巨星 中央醫院院長 李重鉉氏

氏는慶北安東出生의秀才로서일직이京城醫專을卒業하고多年間大邱道立病院에서研究하다가當地에와서開業한것이다氏의學術의高明과診療의合理는오로지그의業績으로보아窺知할것이다또氏가職業的으로仁術그것인同時에社會的으로仁德이不少하다氏는貧貧者에게無料診療는勿論特히官公署其他公共事業에對하야서도獻身的誠意와努力을奉呈하는등實로우리醴泉에잇서서氏의貢獻이크다
◇寫眞은 李重鉉氏



醫藥界의覇王 漢南堂主任 蔡漢祚氏



氏는醴泉出生으로일직이忠州公州에서十四年間긴歲月에漢醫學을研究하다가지금부터十三年前에醴泉에와서開業하얏다氏의經驗이이와가트니만큼氏의研究는深刻하다그럼으로氏의藥房에는診察室에손이끈칠사이업서서藥績이날로繁昌함은勿論醴泉醫學界의巨星이라名望이높다
◇寫眞은 蔡漢祚氏

儒家規範의典型인 柳隱亭主人 李宰翼氏

先緒를善守하고兄弟和睦함은儒家의美德이다世降俗末한今日에柳川面柳坪洞李宰翼氏는果然今世其人이라하겟다氏는數千石巨富로서氏의先考의遺志를承順하야總工費六千餘圓을投하야柳隱亭을新築하얏다(柳隱亭은氏의先考號)氏가肯構肯堂의孝가잇슬뿐아니라兄弟叔侄間에도特別한友愛와敬事하는法이足히世上의模範이될만하다한다또社會的活動도相當하다柳川面協議員農會評議員學務委員柳川消防組副組長農村振興組合長等의要職에在하야地方事業에도자못貢獻이不少하다
◇寫眞은同柳隱亭과李宰翼氏

漢藥種商界巨頭 萬回堂藥房 張師鐵氏

氏가漢藥界에從事한지는벌서二十餘年이다그러한것만큼氏는漢藥에對하야研究가深奧하다開慶郡大上에서十五年間이나營業하다가지금부터六年前에氏의古鄕인醴泉에도라와서萬回堂乾材局을開設하고伊來業務를擴張하는때萬回堂은藥品을精選하고價格이低廉하다는評判이精精하야業務는日益繁昌하야將來가자못期待된다
◇寫眞은 張師鐵氏

面民의推仰받는 龍宮面長 權五璟氏

龍宮은元來郡所在地이든關係上面이라고는하나行政上其他로보아우리醴泉에잇서서가장重要한地域이다氏가該面에面長으로推戴된후로公務上으로또는私的으로地方發展에貢獻이적지아니하다그리하야氏에對한面民의支持는그야말노絕對的이다
完城舖에이다最近에는[illegible]一千圓을投하야商事務所를新築하얏는데大興北에서도有數한商事務所로서의偉觀이라고한다
◇寫眞은 權五璟氏

卓越한技術家 日進堂時計舖 許奎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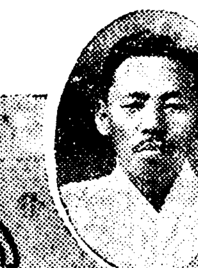
氏는일직부터時計工業에뜻을두고東京日本時計工業學校에入學하야지금부터六年前에同校를優秀한成績으로卒業하고即時歸鄕하랴하얏스나氏의卓越한技術을알게된同校에서는特히氏를挽留하야同校機械部技師로三年間이나勤務케하얏다그동안에氏의研究는實로妙境에이르러時計에對하야는可謂技士라할만치되얏다
◇寫眞은 許奎氏

醴泉一의工業家 三和鐵工所 金珪浩氏

氏는일직부터工業界에뜻을두고멀리東京에건너가서十三年이란긴歲月에實地的으로鐵工業을研究하야科學그것보다도機械의實地的用途普及과構成組立에對하야깁흔經驗과研究를거듭하얏다그다음지금부터七年前에醴泉에와서三和鐵工所를開業하얏스니氏가機械에對하야는可謂神이라稱함은도는다氏의業務는日益隆盛하야지금에는慶北線一帶에氏의압을설者가업다한다
◇寫眞은 金珪浩氏

外地에까지進出하는 聲價노픈"醴泉痰藥"

매약(賣藥)이라고하면서양것이나일본내지것이들어와풍미하고잇는조선에서이와반대로조선사람의손으로된매약이조선안은물론일본내지와만주중국등기타외지에건너가서존재가두렷한약품이잇스니이것이유명한례천담약(醴泉痰藥)이라는것이다
이담약은경북례천읍일신당(日新堂)양덕수(梁德洙)씨가의전래비방으로된명약인데담약의전신은만려단(萬黎丹)으로양씨의선대양종혼(梁鍾渾)씨의창제로당시모든긔구가불비하고교통기관이불편할때각지에서모혀드는과객의떼를리용하여그들과객의유랑성을억시하고저약을만들게하고그의보수를후이지금항으로과객의호리지는입으로전파한만령단의성가는당시과연놀나운바이되엿섯다
그리하여지금의양덕수대에이르러영수(榮洙)의실업가전병원(全炳元)씨의노력으로이십만원의주식회사를계획중이며안으로양씨의약품제조와박그로통회사오전무전병원씨의끄민한활동으로조선안추요각지에지점특약점을설치하고해외에향하야약품의진가를알니게한결과지금에조선안은물론해외로나가는것만이매월수천원의다액에달하야더욱그수자가늘어가는성황이라한다
이젠천당약은십구종의당초재의중재로가루를만들어조합제조한것으로먼저이약을먹어야되는증세는억개가삼허리팔다리손이따갑고쑤시고저리고맛치이고하야제색으로붓고아프고하는우에날세가흐리고밤이나술먹은뒤에나노릉을만히하든지려행에피로한때나혹한혹서에더욱사지뼈마듸가숙숙쑤시고저리고하군데만아프지안코전신에도라다니며아프고감기와가티오한이들면서제색으로생기는병에는신효하기보다백발백중이라한다
이와가티리이방면환자의복음이되여잇는례천담약은폭주하는주문에제품을대여낼도리가업서일시선전은중지하고공장확장제조능률증진등내부설비를충실히하는데전력을쓰는나머지이제와서는만반의설비가완비되여풍부한재고품을두고얼마전부터전세계를향하여판로를넓히기에활약하게되엿다고한다
◇寫眞은 全炳元氏 梁德洙氏



◎三世神方 醴泉痰藥
製造本舖 日新堂藥房 梁德洙
[illegible]

醴泉實業界의重鎭인 德興洋行 黃義洙氏

氏는일직부터朝鮮사람의色服着用에着眼을두고멀리大阪에서染料株式會社에가서多年研究하야特히染料製造와染色에對한技術的價值는오로지氏가自負하리만치爛熟한境域에이르럿다그리하야지난大正十一年에醴泉에도라와서德興洋行이라는看板을걸고染色工場을經營하얏다元來科學的研究에技術的經驗이잇슴으로氏의業績은日就月長하얏스며또昨年부터는洗濯部를新設하야一般市民의便宜를도와주게되얏다如何든醴泉實業界를爲하야만氏의將來에對하야多大한囑望이잇스리라고생각한다
◇寫眞은 黃義洙氏

社交界의花形인 司法書士 具滋益氏

醴泉을認識하는사람으로서는有名勿論氏를聯想치안니치못할것이다氏는職業이代書인同時에氏에게事件을依賴하면文字그대로百不一失이라한다그뿐만아니라醴泉社交界, 事業界를通하야어느곳에나氏의손이미치지아니하는곳이업다그리하야氏의活動範圍는實로廣範하나各方面의推仰을밧는醴泉金融組合評議員醴泉產業組合評議員醴泉邑會議員會委員藥酒會社副社長消防組幹部商工會理事等의公職을보고잇는것은周知의頭腦와沉着한人格의所有者로서事業의將來는前途가洋洋하다
◇寫眞은 具滋益氏

人格的推仰받는 醴泉警察署長 高木靜太氏

氏는赴任한지아직二個月에不過하나一般民衆에게德望과推仰이날로놉다그리하야警察이란民衆을取締하는官廳이라기보다도차라리指導하는官廳이라는것을實地로證明에게普及되야警察行政의民衆化가如實히表現되고잇다氏가우리醴泉에서將來만흔感化와事業을남겨노으리라고官民間期待하고잇는바이다
◇寫眞은 高木靜太氏

人蔘栽培先驅者 開城人蔘商 金泰濠氏

氏는元來開城出生의關係上人蔘

醴泉主人公格인 酒造株式會社社長 張基生氏

氏는曾往道評議員으로現官選道會議員이고醴泉消防組頭를兼職하얏스며醴泉金融組合長, 商工會副會長, 商友俱樂部長, 其他醴泉에잇서서무슨機關, 무슨團體할것업시氏를推戴치아니하고는일이되지안는다그러한것만큼氏는人之長器를不論하고그賴點이라고하겟고事爲의輕重先後에는秋毫도差錯이업습으로今日에氏의名聲과地位가釀成되얏다고하겟다
◇寫眞은 張基生氏
敷千圓에寄附하니貧民救濟의一助도되다지는醴泉特產界를爲하야氏의努力에敬意를表한다
◇寫眞은 金泰濠氏

柳川의主人公 柳川醸造場 趙秉郁氏

氏는咸昌出生의才子로일즉이土地調査局技手로在職하다가其後盛況方面으로放浪하엿스며다시醴泉郡農業技手로奉職하다가斷然實業界에投身하야氏가實業界에서成功한것을다음에列記하야보면柳川醸造場經營을爲始하야大田金剛酒造株式會社와聯合醴泉酒造組合副組合長尙州藥酒式會社取締役等醸造界에君臨하야잇다
◇寫眞은 趙秉郁氏

醫療界의一人者 龍宮公醫 任秉煥氏

氏는昭和五年二月에大邱醫學專門學校를卒業하고即時大邱道立醫院內科囑托醫로任命되야多年臨床內科를研究하다가慶北金泉郡知禮公醫로任命된바當地에서도多大한歡迎을받다가昨年十月一日에다시龍宮公醫로轉任하야赴任한지아직日淺함에도不拘하고患者가날노不納하야學術의高明함은틀림업아니하는니가업다
◇寫眞은 任秉煥氏

龍宮實業界牛耳 龍宮酒造場 權五德氏

元來龍宮의富豪家의所有者인氏는京城普成商業學校를卒業하고鄕里에도라와서家業整理와여러가지實業界에着手하랴는中斷然龍宮酒造場을經營하기로다氏는多數小作人에게도厚하야그命聲이精할뿐만아니라一般에도溫厚한人格이自然認定되야龍宮繁榮會副會長을爲始學務委員水防團副團長米穀統制組合總代等의要職에處하야各方面에活動이漫漫하며또本報龍宮分局長으로서信望이놉다
◇寫眞은 權五德氏

囑望잇는實業家 大南印刷所 林世潤氏

氏는郡內에서도有數한地主로서今年부터大南印刷所를經營하게되야業務를一層擴張하고內容을充實히하는一方多方面으로交際手腕이明敏하야業務는날노繁昌하야醴泉唯一의印刷所로認定된다그것은氏의經營方針이採算그것보다도오히려技術方面에置重하야印刷物의美化를圖謀하는關係上今日의長足發展을보게되는바이다
◇寫眞은 林世潤氏

刀圭界最高權威 春日堂藥房 李衡杰氏

氏는慶北安東出生의當年四十一歲壯年으로서漢方醫學에對한研究가深奧함은周知하는바이며더욱이婦人小兒專門에는可謂白眉中이라고한나特히患者에對하야親切仔詳하야누구나한번氏에게診察을바다본사람은자못感動치아니치못한다
◇寫眞은 李衡杰氏

唯一의齒科醫師 中條信次氏

氏는大阪府의出身으로多年間氏의故鄕인大阪에서開業하야만흔歡迎을받다가偶然한動機로朝鮮에오게되야우리醴泉에서開業하게되얏다氏가來醴한지日淺함으로아직은一般이그다지깁히認識하지못하나氏의學術과技巧로말미지아니하將來에큰成功을보리라고한다
◇寫眞은 中條信次氏

一流社交家인 龍門 朴魯鑽氏

氏는龍門의故家世族으로豐裕한家產을所有하얏스며瀟洒한社交手腕은氏로하여금다음의公職이自然氏의一身에集中하게되얏다氏는龍門消防組頭를爲始하야學校評議員西部金融組合監事醴泉產業組合評議員等의要職에處하야公共團體와社會事業에盡力하고잇다
◇寫眞은 朴魯鑽氏

多方面의活動家 司法書士 黃德海氏

氏는職業으로는司法書士이나代書그것보다도醴泉公職에直接하야活動이자못廣大하다氏의公職을熟記하야보면氏의醴泉서의存在를可知할것이다氏는醴泉郡農會評議員醴泉面協議員學校評議員消防組副部長成會委員消防組合小頭金組評議員水防團部長等要職에잇서서醴泉서公私間무슨일에든지氏가參加치아니하는곳이업다
◇寫眞은 黃德海氏

穀物商界의巨頭 權泰益氏

氏는三十四歲의靑年商人이다氏가赤手空拳으로累萬의富를致함에는獨特한手腕과商業이에明敏한頭腦로經濟界의動向을잘살피어손을대이는곳은언제든지莫大한利益을본다고한다氏는去來相手方에信用一貫으로하기까닭에氏의書信이나電報一枚는곳現金과맛찬가지로信用된다고하니이것이商人으로서生命인同時에資產이다
◇寫眞은 權泰益氏

穀物貿易大家인 朴湘鳳氏

醴泉은元來가穀物集散地인關係上穀物貿易으로成功한사람이만흔中特히氏는其中大家이라고指稱된다氏가穀物界에손을대인歷史가깁흔것만큼氏의信用은참으로그範圍가廣大하다奧地는榮州奉化方面을背景으로하야購入의便이有하고他地方으로는大邱釜山方面에富商大賈들이氏의電報一枚로能히幾千圓의去來를한다하니氏는可謂斯界의成功者이다
◇寫眞은 朴湘鳳氏

寬厚한事業家인 醴泉酒造合理事 尹政熙氏

氏는醴泉의名家後裔로亦是醴泉을爲하야保駒蕃藥하사람이다氏가十餘年前에는官界에投身하야醴泉郡廳과榮州郡廳에勤務하다가自覺한바가잇서서斷然職을辭하고醴泉酒造株式會社를創立하야專務取締役으로活動하얏스며其後醸子組合理事에推薦되야今日까지多大한成績을나타내이고또醴泉產業組合長을爲始하야醴泉事業界에는氏가드지아니하고는거이안될니만큼氏의存在가重大하다
◇寫眞은 尹政熙氏

龍宮의相談役인 司法書士 三枝銀三郎氏

氏는神江戶兒의士族으로서神田開城中學을卒業하고大正三年에渡鮮하야伊來醴泉에居住하얏다此의現職業은司法書士外에肥料輸入販賣스탄다—드石油代理店東京火災保險代理店等이요氏의公職은面協議員在鄕軍人分會長龍宮金融組合監事前龍宮振興組合長龍宮消防組頭學校組合評議員等이다
◇寫眞은 三枝銀三郎氏

模範的實業家인 同春堂藥房 朴紀洙氏

氏는當年三十二歲의青年實業家로서昭和九年부터同春堂藥房을經營하야氏의出衆한手腕과超邁한商策은無競同春堂藥房으로하여금天馬行空의勢로發展을보게되야至今에는醴泉唯一의權威인것은勿論멀리榮州奉化方面까지도各國醫療에依信을하고잇스니實로慶北線藥界의貢獻이不少하다氏는明哲한頭腦와組織的人格의所有者로서그의將來의活動이자못[illegible]되는바이다
◇寫眞은 朴紀洙氏

洋品界의王座인 文化屋第二店

當店은任人이共同仕入인것만큼合理化하야잇스며一店은榮州邑內에二店을醴泉邑內에두어서慶北線一帶에第一信用잇는百貨店이다當店의特色은物品을精選하야良品을廉價로正札販賣함에잇다그럼으로開業한지不過三年에文字그대로旭日昇天의勢로進展하고잇다
◇寫眞은 文化屋第二店

技術의最高峰 大光寫眞館 具英會氏

氏는八年前에東京寫眞學校를卒業後即時歸鄕하야業을開한바氏에게는藝術的根據보다도天才的技術이特有하야醴泉의斯界를獨占하야잇슴은勿論더욱이손님에게親切함과信用本位로迅速酬應함에는一般市民이다稱道하고잇다
◇寫眞은 具英會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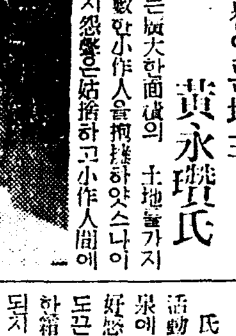
實業界에重鎭인 醴泉商會 李雲穆氏

氏는當年三十九歲의壯年活動家로지금부터十年前에그故鄕인平南으로부터醴泉에移住한바元來百折不屈하는意志의所行者이라宗教의信仰과教會의發展이氏의使命인同時에經濟的基礎에着眼하야海陸物產貿易에着手하야今日에이르러累巨萬의財源을보게되고또昨年부터는穀物部를新設하야貿易을開始하얏스니머지아니한將來에多大한成功을보리라고밋는다氏는現在基督敎長老로서市內에廣大한基地를買入하야敎會堂建築을計畫하고잇다한다
◇寫眞은 李雲穆氏

醫療界의重鎭 共濟醫院院長 鄭道泳氏

氏는일즉이京城醫專을優秀한成績으로卒業하고江原道金化公醫로赴任하야多年間臨床醫學을研究하다가其後仁川에開業하야만흔歡迎을바다스며醴泉에서開業하게되바氏가醴泉醫療界에잇서서如上한經驗과研究를쌋은것만큼業績은자못適近全鮮가絕對歡迎에잇다溫厚任辭한性格의所有者로患者에對하야親切하야人格의力으로首仰하게되다氏가醴泉에서開業한지日淺함에不拘하고氏의助手로서開業醫生試驗에通過하야開業한사람이三人이나된다그럼으로共濟醫院은醫生養成所의德이不無하다
◇寫眞은 鄭道泳氏

名望잇는地主 黃永璉氏



氏는廣大한面積의 土地를가지고無數한小作人을擁護하얏스나이제까지怨聲은姑捨하고小作人間에오히려讚辭가藉藉하야郡內에서도模範地主로認定되며氏는公共事業에도誠意를가지고醴泉公立普通學校移築期成會에도氏가率先自進하야數千圓을喜捨하얏스며其他醴泉社會에서金力을要하는事業에는多少를不拘하고앗기지아니하는바자못놉다한다
◇寫眞은 黃永璉氏

鮮人家庭狀況과其他習慣에이어서特히奇現狀으로一般朝鮮人市民에게歡迎을받고잇다

責任感이깁흔 郵便所長 高取鐵造氏

氏는中學卒業後東京郵便電信學校行政科와日本法律專門學校法政經濟科를卒業하고東京郵便局과東京郵便局에勤務하다가明治三十八年日韓通信合同의機會로京城으로任命되여淸州高等郵便局長을비롯하여京城郵便局現業幹部兼現業監督을勤務하다가元山郵便局郵便課長群山郵便局長大邱郵便局長釜山遞信分掌局監督課長으로多年奉職지금으로부터三年前에醴泉郵便所長으로就任하얏다氏가온以後로는特히郵便物의配達이迅速하며電話交換이敏活하야一般의稱道하는바이다氏는社會와民衆에對하야遞信機關의任務를遂行하는同時에그責任을完全無缺하게履行할것을自期한다고한다

八方으로適材인 産業組合理事 張命吉氏

氏는京畿出生의當年三十四歲의活動家이다氏의外交手腕은자못醴泉에잇서서各層各階級을勿論하고好感아니가지느니가업다그런中에도끈끈코매조는것이處事에는자못銳利한籍숫과갓다氏가本組合의責任者된지三年에그業績은可驚할好績을보엿스니即赴任前三年동안損害가二萬九千四百八十七圓三十四錢이나되엇는데赴任後二年間利益을내인것이二千四百七十六圓五十一錢에達하엿다

商業界의君子人 貿易商 黃喆周氏

氏는商人이라고하기보다차라리修德하는君子라함이可하다商界에從事한지가數十年에이르러累巨萬의致富를하얏스나그것은純全한時勢에順應된商道上利潤이어서그와번도非義와無理를한적은업다氏의年貿易額이五六十萬圓에達하나一次도手形이나約束을어긴적이업다하며取引先이나得意先에서氏에對하야不平을云謂하는일을드른사람이업다한다
◇寫眞은 黃喆周氏

醴泉에唯一인 丸六荷主運送店 金庚東氏

氏는元來大邱丸六運送店職員으로서四年前에同店의用務를帶하고醴泉에出張하얏다가一驛一店主義下에만흔不便을느기는醴泉商業界를보고도지바가이서荷主運送店을經營하게되야純全한顧客本位로親切叮嚀을一貫한氏는未幾에醴泉商界에서絕對好評을博得하야業績이날노進展되야지금에는委託이輻湊하야店勢가日益繁昌한다고한다
◇寫眞 金庚東氏

醫療機關主人公 公醫 中島貢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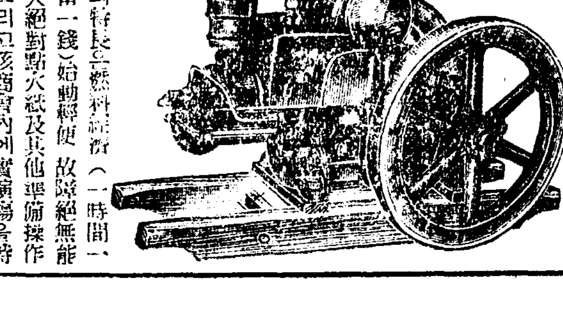
氏는熊本縣出生으로昭和八年醴泉公醫로赴任하얏다氏가患者를對할때에는무엇보다도醫師의任務와責任을痛感하는同時에患者의心理를잘理解하야誠心誠意로治療함으로氏가擔任하야보는患者는거의百퍼센트가奏效한다職이公醫인만큼恩賜治療에도普通患者以上의親切과誠意를發揮하야一般의稱道와推仰이자못크다氏는沈着한性格에用意周到한典型的醫師이다그리고朝

外地進出의實業家 安東穀業組合 申大均氏

組合이라면一般的으로經營하는組合인것이하나氏의組合은文字그대로諸機械取資具인데農家와小資本經營의製造業에關한一切機械類는大衆具備하야實로農業商業의原動力을助長하고잇나니氏의業績은旭日昇天의勢로進展하야一般은本組合의將來에만흔期待를가지고잇다

農家의大福音 尙榮商會 李寅榮氏

氏는數十年官界에奉職하야特히農村指導에注力하다가今年봄에斷然職을退하야醴泉邑에서前記商會를開業하고얀마—디—젤重油發動機慶北線總特約店을經營하게되얏다



本機의特長은燃料經濟(一時間一馬力當一錢)始動輕便 故障絕無能率偉大絕對點火裝置 및其他準備操作不要그리고該商會內에實演場을特設하야一般에公開宣傳한다따라서農村改革上一大有助하다
◇寫眞은 同商會取扱의發動機

大覺을目標하는 西岳寺主持 李東衍氏

氏는十五歲에出家하야八山苦行二十餘年에佛敎의眞理를研究하엿다現代의僧侶로서五戒를嚴守하는이가거의드물건마는氏는아직것獨力으로一貫하야오는中西岳寺住持에就任時로荒廢한道場築石과建物修理와寺財整理等에獻身的努力을하엿스며心田開發을一般에認識케되엿다

仁川道立醫院 不遠改築着手

花町에基地買收

【仁川】 인천부도립의원개축문제는 작년도부터 문제중에잇든바 기지를 화정(花町)으로 정하고 기지매매에분망중이든바 그것도 일단락을고하게되얏고 도인가까지 밧게되야 삼일 인천부청내에서 입찰을하기로하얏는바 공비 십오만원예산으로 철근조건물을 건축키로 내정되얏슴으로 동원의준공과함께 화정일대에위관을 보이게되리라한다

水魔掩襲에對備 防水陣整頓코待機

京畿道保安課에防水、救護係等四係設置코 命令一下出動토록陣容强化

해마다 여름장마철에는 한강(漢江)연안의홍수소동으로 뚝섬(纛島)마포(麻浦)등수란을겪고잇느니만치 금년에도 이러한재앙이잇슬것을 두려워하야 경기도보안과에서는미리부터 경성수방계획(京城水防計劃)을중의주도하게짜가지고 그런때를 당하야인력이자라는데까지는 재해를 방지하려고 방금만단의 조직과준비를다하야 가지고잇다 그조직은 총무계(總務係) 방수계(防水係)구호계(救護係) 경계계(警戒係)로부터하여가지고 각각보안과 토목과 지방과 경무과가 주무를맛고거위 경기도전부가그 조직범위에들어서 수위(水位)가 구「메돌」이될때에는 수방본부를 경기도청에두며 십삼메돌이넘을때에는 련병정(練兵町) 에잇는 활동사진관 경룡관(京龍館)에두기로 되여잇다 이리하야 한강연안가평(加平)려주(驪州)춘천(春川)충주(忠州) 룡산(龍山)욱천(旭川)의 량수표(量水標)를 경계하야 홍수를 각각으로예보하며 피난과경종이며 그경계등일체의 준비를 가추워서 만약이번에홍수가 잇는때에는 이조직적수방계획에 의하야 질서잇게 격거나가도록 될모양이라고 한다

楊州所得調査任員會

【楊州】 양주세무서에서는 칠월일일 오전십시부터 동서회의실에서 소득조사임원회를 개최하고 소화십이년제삼종 소득금액과 을종자본리자금액에 관하야 심의하고동오후네시 폐회하엿는데 다음번은 오일오전십시에다시열리라고한다

防腐貯藏庫업는 牛肉商嚴重團束

仁川署의夏節衛生積極策

【仁川】 하절을당하면 항상매사의물건이부패키쉬운점이만타 부민보건문제에 적지안흔지장을일으키여주고잇게되므로 인천경찰서에서는 칠월부터 각종수육관매상에게 방부창고가업는곳은페업식힐계획으로 일제취체하리라한다

金浦靑年熱誠으로 金浦夜學會隆昌

【金浦】「배워야산다! 아는것이 힘」이라는 표어미테 김포지방에는 방방곡곡에 야학회가설립되엿는데 그중에도 김포읍에설립되여잇는 김포야학회는 그내용에잇서 일반의모범을 보이고잇다 동야학회는 금릉청년분단(金陵靑年分團)에서 소화십년도에설립한것으로 청년독지가 정준(鄭濬)씨가 회장이되여 칠팔명의청년들의 노력으로 오늘에는 일백삼십여명의 무산아동을 수용하야 해방하엿고 이미 문맹지옥에서 오십여명에 달되여나간청년도 잇다한다 뚝잇고열잇는 청년들의노력은 오늘에훌륭한 성적을나타내고잇스나 교실협착 설비불완전 기타경비곤란으로 그학원당국자들은 고통을 사고잇서 이러한때에 독지가의출현이잇기를 바란다고한다

母校運動場擴張費로 五百圓을醵出

江華合一校同生들의熱誠에 梁貞淳女史도感激해百圓喜捨

【江華】 강화합일보통학교는 현재오백아동을 포용코잇것만 운동장이업서 당국자들이 이문제에고심코잇든중 동교 동창생들이현금오백원을 거더내노컷다는 갸륵한소식을듣고 강화읍에서영춘관(迎春館)이란료리집을 하는 양정순녀사(梁貞淳)(五七)가 현금백원을 동교운동장확장비에 기부하겟다고거일일신청이들어왓다

恩人에게暴行

수정뱅이의脫線

【仁川】 지난일일 오후구시반가량하야 부내송현정(松峴町) 칠십구번지에사는 신란상 권창섭(權昌成)(二三)이가 술이 대취하야 만석정(萬石町) 사십륙번지아플 비틀거리면서 것고잇는것을 마츰 지나가든 가튼동리에사는『베타야』 공장직공 김동환(金東煥)(二一)군이 자기집으로 다리고가서 그대로 거러가면위태하니 자기집에서 자고가라고 친절히권고하며 자리에 누피려고 햇드니 별안간에 이러나김군의 뺨을 주먹으로갈기며 이를 한개부러트리고 또폭행을 하라 할지음에 마춤순행하고잇든 순사에게 자피어 류치장 신세를젓다

심부름가든 안잠이被襲

【仁川】 칠월일일밤열시경 인천부화방정(仁川府花房町) 원전모(原田某)의집 하녀로잇는 최봉희(崔鳳姬)(一七)는 주인의심부름을가다가 동경 동양방직회사(東洋紡織會社)뒤담을 지나도라올때 돌연 사십여세가량의 조선인장한이 나타나최봉희를 끼어눕으고 가젓든도치갈을 빼앗어가지고 어둠속으로 살어젓는데 지갑속에서는현금사원칠십칠전이들어잇섯다고한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소리를첫스나 범인은이내

술醉해登樓

娼妓들에게暴行

【仁川】 화평정(花平町)일백십번지에사는 고물상 리억지(李億芝)(二一)는 지난일일 술이대취하야 부도(敷島)유곽송학루에 등루 창기춘자(春子) 공재정(孔在貞)(二三)들의 『서ー비스』가 나뿌다고 무수히 구타하야 전치일주일간 구류의처분을 바덧다고한다

曲折큰仁川夜市

二日附로畢竟商工協會에認可돼 來十日부터開市

【仁川】 단체와개인이 경원(競願)하야 그인가문제에 중대한지장을일으키여 일반중소상업자의 난관이되여잇든바 개인출원자인 박영섭(朴英涉)씨가 전권을상공협회에 양여하는동시에 자기에 출원하얏든허가원까지 취하하야 마츰내 문제중이든 야시는 이일부로협회로인가되엿다는바 개시는 십일부터라하며 지망자는 인천체육회내의 상공협회로 신청하기바란다한다

京城서窃盜질하고 楊州行脚中被捉

東大門場專門窃盜團三名이

【楊州】 경성부상왕십리정(京城上往十里町)에사는 리만직(李萬植) 정순철(鄭順鐵) 김학규(金學奎)—이상전부가명—등 삼명의 거동이수상하야 양주경찰서에서 인치취조한결과 의외에도 그들은절도단인것이 판명되여 방금엄중취조중인데 주로 동대문(東大門)방면으로 횡행하며 절도질하든악당들로그외에도련루자가또잇는듯하야방금엄중취조중이라한다

『스피드』自動車가 少年을轢傷

【仁川】 화방정(花房町)일정목압흘 질주하든 신정『스피ー드』자동차누운전수 리장수(李長壽)(二[illegible])는 그만잘못하야 동정일번지에사는 고주길의 장남 익순(益俊)(七)을 치어서 전치삼주일간의 중상을입히엇다

"배암아·날무러라!"

連珠瘡알른그女子가제목에다 毒蛇드려대고咬傷强制타奪命

【平康】 지난이십일일밤에 평강군 현내면 북촌리(平康郡縣內面北村里)에 사는 박영선의처 박선녀(朴永壽妻朴善女)(三[illegible])는북에 연주창(連珠瘡)을 고치려고 배암한마리를 잡아다가 일부러 물아픈자리에 드려대고 물렷든바 결국배암의 독이 드러뻐더서 열시간만에 죽엇다한다 그는 오후변전부터 목병으로고생해 나려오다가 그러함이 떠도라다니는것을 고지듯고 그가리어리석은 치료를 하다가 생명을 일코 만것이라한다

喪家서술마시고 隣人을毆打致死

뒤각대각말다툼끄테

【平康】 지난이십일밤평강군서면옥동리(平康郡西面玉洞里)오백[illegible]번지에사는 서확용(徐擴龍)은 망월리리창근(望月里李[illegible])의 어머니상사에갓다가 그집후원에서 여러사람과함께술을 마시고 대취한바람에 그동리박재복(朴在福)(三五)과 사소한 언쟁끄테 전기서확룡은 박재복의 중부와 하복부를 찬것이 결국원인이되여 지난류일이십오일아침에 마침내죽엇다한다 평강서사법계에서는 가해자를 인치취조하는한편 피해자의 시체를 해부한결과 상해치사인것이 분명하야 계속취조중에잇다한다

面書記、郵便所員等이 公金九千圓橫領

一般貯金、簡易保險等닥치는대로가로채 大聖面會計、豊德所員等의犯行

【開城】 개풍군대성면(開豊郡大聖面) 면회계원 고상원(高相源)(二六)、풍덕우편소통신계에 잇는 김세영(金世榮)(二四)동사무원 고경히(高慶熙)(二四)동집배인 송일룡(宋一龍)(二三)등 사명은 서로 공모하야가지고 동우편소의 예금과 일반간이보험금 약구천칠백원을 횡령하야 주색과 도박에 소비해버린것을 동지주재소에서 탐지하고 체포하야 개성서로 넘기엿는데 동서에서는여죄가더잇슬까하야 계속취조중이라한다

晩夫가非命橫死

亂暴한牛公狂奔통에 暴暑에부다껴날뛰는바람에

【開城】 장단군진서면전제리(長湍郡津西面田齋里)팔십팔번지 한창식(韓昌植)(三一)이란 우차부는 지난이일 오후한시경 개성와서 진흥한달구지를끌고 부외 령남면룡흥리(嶺南面龍興里)약초연구소(藥草研究所)압길을 지날지음 때마침 끌고가든 황소가 무엇에놀랫든지?혹은 더위에조갈증이낫든지 돌연 맹수와가티 날뛰는서슬에 전기창식은 현장에 졸도하면서 안면을 도로에 강타해서 코、입、귀로부터 다량의피를 쏫고 무참히죽고 말엇다한다

旱魃·平康一圓을蹂躪 農作物全滅狀態

十日內비안오면今年收穫絶望 郡民들周知所措해祈雨祭擧行

【平康】 평강군 현내면(平康郡縣內面)에는 가뭄이 심하야 농작물은 전부 전멸상태에 빠저 동민들의 불안이 거이 절정에 달하야잇는데 그중 내동면 갈돈제 몽리구(內洞面甘屯堤蒙利區)는 십일내외에 비가 안오시면 륙백여정보나되는 광대한 면적의 농작물이 전부 타죽을터이므로 현내면사무소에서는 지난 이일 면민 백여명 참집리에 면장 김인승(金仁承)씨가 면민대표로 갈돈산에서 비를나리게해달라고 기원제를 거우하엿다고 한다

彥星、星의 相逢實況放送

仁川觀測所서

【仁川】 오는칠일JODK에서는 인천관측소오창에「마이크」를장치하고 견우성(牽牛星)과 직녀성(織女星)이일년에 한번만나서 자미잇게속사이는 모양을 실황방송하기로되엿다한다

漢江에投身한 靑年을救助

부내 원정(元町)일정목에잇는 불교혜제원(佛敎惠濟院)의 김일성(金一星)이라는청년은 이일오후아홉시반쯤에 원정사정목부근한강에 투신한것을 통행인이발견구조하야 목하혜제원에서 정양중으로 원인은 조사중이라한다

임자업는屍體 今年에十餘個

【仁川】 인구의 도시집중은 근일의 사회상이거니와 이반면에 도회의 한가운데서 림자도업는 자기의 추악한 살덩이를 남겨놋는일이 비일비재하야 인천(仁川)에서도 금년에들어 벌서 십여개의 행려시가 낫는바 그대부분이 청장년으로 벌이자리를 차저서 왓다가 객지에서 병마와 기아와 싸우다가 영양부족 뇌빈혈로 죽어넘어지는것으로 인천부는 이시체의 처치에 경비를 추가하여야할지경이며 장차닥처올삼동에는 더욱 행려시의 반갑지안흔증가를볼모양이라한다

料理값올리자 旅館도追隨

春川宿屋組合員陳情

【春川】 춘천에서는 천정모르고 오르는 물가로말미암아 료리점조합에서 일부음식갑슬 인상하는데 불구하고 칠욱을 직히고 잇든 동업자 숙박조합 에서도 인제는 할수가업는지 지난류월삼십일 동조합간부들이 회합을 거듭한결과 숙박료를 종래보다 각오십전식 인상시키여 달라는 것을 당국에 진정하기로 결정하고 산회하엿다

六月中家畜買賣 牛、豚이首位

二千五百頭突破

류월중의 경성부영 가축시장(京城市場)에 입장한소는 이천사백십사두로 그가운데 매매된것이 일천구백구십팔두로 그가격은 이십칠만칠천사백삼십삼원이고 말의입장두수는 하나뿐으로 그매매가격이 삼백삼십원이고 도야지는 입장수가 사백륙십칠두로 매매된것이 삼백이십두인데 그가격은 일만칠백사십원이여서 총입장두수는 이천팔백팔십이두로 매매되는 이천삼백십구두인데 그가격、총액은 이십팔만팔천오백륙원으로 되야잇다 그런데이것을 전년동기에비교하야보면 ▲소(牛)는 입장두수가 이백십오두 감소하얏고 매매된것은 작년동기보다 이십사두나 감소하얏는데 가격에잇서서는 일만구천삼백삼십이원이나 증가되얏고 ▲도야지(豚)는 입장두수 구십구두 감소되얏고 매매에 잇서서도 백칠십일두 감소로 금액도일천오백칠십오원감이다 그런데『소』갑시 이처럼 앙등하는것은 비상시국으로 말미암은 우피(牛皮)사용의 격증과물가앙등의 반영으로 짐작된다고 한다

開城 全朝鮮團體庭球大會

▲時日 七月四日午後十時
▲場所 水岩山球場
▲申請 七月一日午後四時까지
◇賞品 優勝旗及副賞授與
◇主催 高麗靑年會體育部
◇後援 朝鮮日報開城支局

今夜 納涼[illegible]會

▲時日 七月三日(土)午後八時
▲場所 松峴町基督敎會
◇主催 松峴敎會幼年主日學校
◇後援 朝鮮日報仁川支局

祝 醴泉地方紹介版發行

醴泉郡廳

趙秉郁
柳川繁榮會長 醴泉西部金融組合長 醴泉面會評議員

慶北醴泉邑南本洞
優良菜蔬種子 草花種子球根 觀賞植物苗 鉢植用花卉苗 園藝器具品
醴泉種苗店 主 黃達洙 振替釜山七四四四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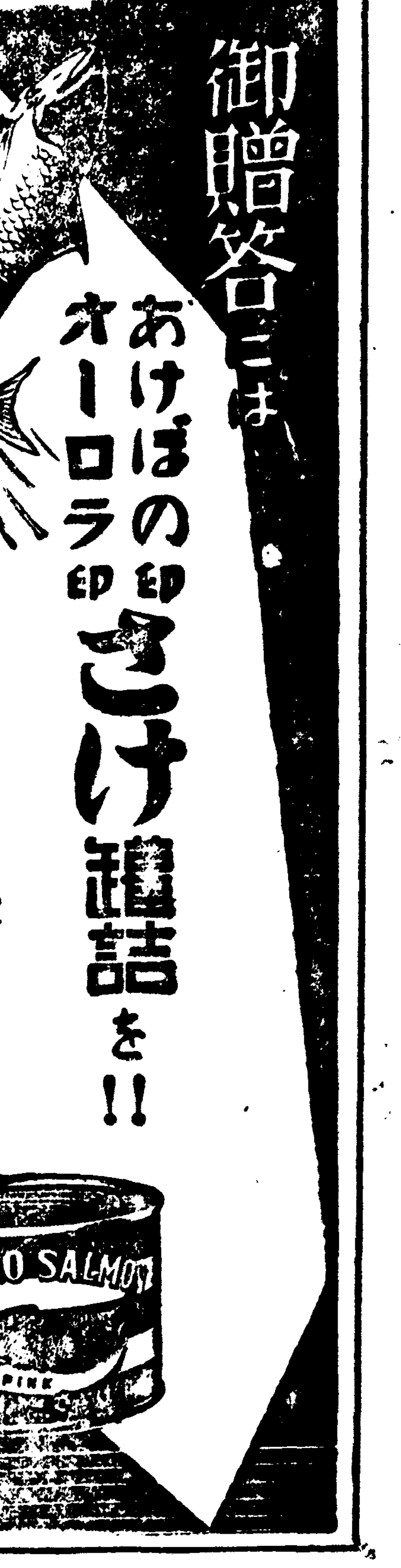
醴泉穀物商組合
富民製粉所 李相浩
醴泉酒造株式會社
醴泉藝妓組合
醴泉產業組合
海陸物產委託販賣 永泉商會 主 黃善國
醴泉公立普通學校
株式會社 大邱商工銀行 醴泉支店
福岡商店出張所 金斗玉
醴泉金融組合
龍門寺 住持 金景泉
醴泉佛敎布敎堂 崔龍墟
天主敎神父 權永兆
慶北印刷所
醴川酒造場 崔致文
各種木材販賣 家具製造販賣 永信社 朴永基
和洋料理 泉家
西部金組理事 八木稔
和洋料理 食道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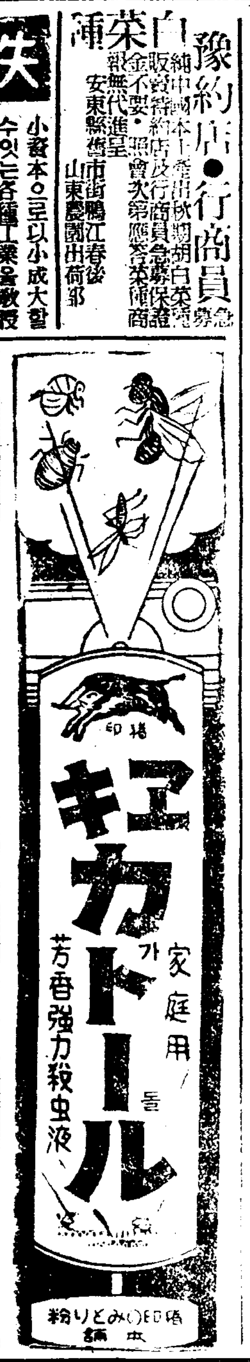
小資本大成功
不景氣모르는確實無違한完全事業의內容案內書三錢切手添付請求次第進呈 京城府蓬萊町一ノ二六 榮信社工業所

朝報案內
募集 小店員二十歲以內要保證人 五日正午까지履歷書持參 市內貫鐵町四八(長橋) 東亞藥局

말더듬이·말몰병
如何한重症이라도完治함 說明書無料送呈함 京城府西界町九ノ六號 納言小心恐怖研究矯正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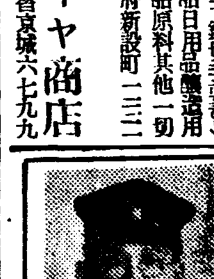
三仙膏
京城鍾路 共生藥業株式會社 電話光化門2547(夜間及休日通用) 1745 振替京城22002





失業者案內
小資本으로以小成大할수잇는各種工業을敎授하는案內書를請求次第로進呈(二錢切手要함) 工業用品日用品製造用品化粧品原料其他一切
京城府新設町一三二의七二 カネヤ商店 振替京城六七九九

豫約店・行商員急募
白菜種 純中國本土產出秋播白菜種 販賣特約店及行商員急募 保證金不要·照會次第應答 無代進呈
安東縣市 鴨江春後 山東農園出荷部

認可

電醫養成全國無試驗開業 醫師同樣聖業
全鮮唯一認可 (失業絶無成功必至)
朝鮮高等電醫專門學院
學則送呈 釜山府榮町一丁目三三

週間大勢

株式 人人이 夏枯云云코 七八月까지 市勢가 언것다고한 豫想을 逆으로 市勢는 二個月餘의 玉整理를 마치고 六月末限新舊鍾을 轉換하야 떠들가리한 金融緩和의 支援과 世界金融界의 安定豫想 米國市場의 回復氣味, 政局安定, 入超激減等等內外의 好材料의 刺戟으로 買人氣는 積極的하야 드듸어 大猛合 後의 上放이되고말엇다。鐘新二百八十三圓餘와 東新百五十七圓臺가 나오게 多幸으로 日滿關係緊迫化를 入하야 賣方은 다시한번 豫期해보앗스나 치면反騰하는 고무공가티 急反撥을 演出하야 新高價를 보이고 週末에는 事業株高 主力株伸悩商狀을 보이면서 株價는 더욱 加速... 今後의 展開가 注目된다.

期米 期米市場은 人氣 不振中에도 週 後半부터 小反撥... [illegible]

生絲 新糸의 出廻期를 앞두고 ... 橫濱 先物은 百四十圓臺 ... [illegible]

綿絲 綿花輸入의 減退와 商勢의 一轉을 ... 二百五十六圓臺로 ... [illegible]

人絹 人絹은 大勢로는 保合이나 原料高에 따라 一高一低의 保合이 ... (金城生)

好景氣反面에 取引停止激增

上期二七一、比前年同期八一增
期末一日間忽驚十一

鞏固한 景氣를 反映하야 朝鮮의 景氣도 漸進되어가고 統計로 나타나는 經濟狀態는 膨脹되는 一面에 잇서서 中小商工業者의 經營難은 反比例로 深刻해가는 모양이어서 이제 上半期中 京城手形交換所로부터 取引停止處分을 當한 사람의 數를 보면 合計 二七一로 昨年下半期에 比하야서는 一五의 減少이나 昨年上半期에 比하면 實로 八一의 大激增을 示하얏스며 特히 注目되는 것은 期末인 六月三十日 하로동안에 取引停止當한 사람이 十一(其中朝鮮人十)일뿐아니라 六月中한달 동안의 數에 잇서서는 五三으로 昨年六月보다 十二增이오 昨年十二月보다도 二增이엇다 이가튼것을 보아 中小商工金融改善問題가 얼마나 重大하고 緊迫한 것인가를 推察할수잇는바 이제 昨年一月以來 各月別取引停止當한 사람 數를 表示하면 如左하다

	月	數	解除
十一年	一月	四六	—
	二月	三九	—
	三月	四五	解除一
	四月	四七	—
	五月	四一	—
	六月	五三	—
	合計	二七一	解除一
十一年	七月	四八	解除一
	八月	四五	解除一
	九月	三四	—
	十月	四九	解除一
	十一月	六九	—
	十二月	五一	解除一
	合計	二九六	
十二年	一月	二〇	—
	二月	二〇	—
	三月	三四	—
	四月	二九	—
	五月	四五	—
	六月	四一	—
	合計	一八九	

中小商工金融 圓滑改善急務

液燃調査 分科會設置

第一回總督府液體燃料調査委員會는 二日午後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大野委員長總督府各關係局課長, 軍部關係者의 各委員出席下에 開催되엇는데 同委員會에서는

一、燃料國策과 朝鮮의 工業
二、人造石油製造事業의 振興助成에 關한 事項(殖産局)
三、燃料資源의 開發에 關한 事項(同上)
四、알콜原料의 給源에 關한 事項(農林局)

一、代用燃料補給計劃의 樹立에 關한 事項(殖産局)

이 如左하다 分科會分擔事項은 採로하고 委員會는 年二、三回開催키로 決定한바 分科會의 結果는 幹事會에서 모아서 委員會에 提出키로하고 分科會의 結果는 各局마다 分科會를 設置하고 協議하고 各研究調査項目을 分擔하야 今後의 委員會構成에 對하야 協議하고 各局마다 分科會를

一、알콜調査實施計劃(本年度經費三萬三千圓)의 二項과 過般各道農務課長會議의 結果, 湯川農事試驗場長의 報告가 잇고 今後의 委員會構成에 對하야 協議하고 各研究調査項目을 分擔하야 各局마다 分科會를 設置하고 分科會의 結果는 幹事會에서 모아서 委員會에 提出키로 하얏다

建設事務를 開始키로되엇는데 同工場은 本年中에 基礎工事를 完了하고 來年부터 工場建設에 着手하야 來秋竣工操業할 豫定인바 製造機械는 約二百萬圓 其中百萬圓은 獨逸로부터 百萬圓은 國産을 使用할 豫定으로 外國機械는 이미 注文하얏다 한다

酒造業者進出에 總督府方針未定

二日의 液體燃料調査委員會에서는 當面問題로서

一、朝鮮無水酒精會社新義州工場의 操業은 本年度中에는 至難하고 現在右木材 알콜事業開始는 昭和十四年一月에 至할것으로 豫想되므로 그間의 對應方針

二、既設燒酎工場의 無水酒精製造計劃에 對한 取扱方針의 二項이잇는데 現在는 仁川朝日釀造 馬山昭和酒類가 燃料用無水酒精製造를 計劃中으로 前記新義州工場의 操業까지 仁川馬山兩業者의 製造로서 補塡코저하는 案도 잇스나 業者間의 生産統制와 將來 專賣制를 豫想할 境遇는 합부로 酒造業者의 燃料用無水酒精製造計可는 안된다는 意見도 나와서 結局總督府로서 右兩事項에 對한 方針은 決定되기에 至치못하얏다 한다

五、알콜工業의 振興助成에 關한 事項(殖産、農林、財務三局)
六、알콜專賣制度에 關한 事項(專賣、財務兩局)
七、液體燃料消費의 合理化에 關한 事項(殖産、農林兩局)

金融難인때이喜報

貯銀三回拂込徵收、貸出限度擴張
中小住宅資金積極貸出

貯銀에서는 不動産貸付限度를 擴張키爲하야 第三回拂込、一株에 十二圓五十錢을 八月二日徵收키로 決定하얏다 이로써 同行의 資本金五百萬圓中 三百七十五萬圓拂込으로되어 全國貯銀中 第三位의 拂込資本으로되엇다한다

이엇다 最近의 全朝鮮各都市의 現狀은 住宅難이 豫想外로 激甚하고 또 各銀行共히 金融의 硬化로 貸出을 躊躇코잇슴으로 住宅難은 去益加重되는 情勢이다 그럼으로 當行으로서는 이에 鑑하야 中小住宅資金의 貸出을 積極的으로 行키로하고 그 資源으로서 拂込을 徵收한것인데 貸出限度는 新拂込金百二十五萬圓만큼 擴大될것이다 拂込理由는 以上外에 低金利의 此際內容을 充實하야 預金者에게 對한 擔保力을 充實케 한다는 銀行經營上의 理由도 倂有한것이다

不動産貸出 一口限度一定

貯銀의 總貸出은 現在二千七百萬圓에 達하고 其中不動産貸는 二百七、八十萬圓에 達하얏는데 本年中에는 三千萬圓을 突破할 豫想이라한다 그리고 不動産貸에 對하야서는 貯銀이 庶民金融機關인 意味로 一口의 貸出限度를 一定코저 研究中으로 多額의 貸出은 銀行自體의 收益으로서는 同樣이나 庶民金融의 趣旨에 反함으로 될수잇는대로 少額의 貸出限度에 一定하고 一般의 便宜에 備할 意向이라 한다

伊森貯銀頭取談

貯銀에서는 今回拂込資本의 增大에 依한 不動産貸付의 限度擴張을 行키로 되엇는데 이것은 最近全朝鮮各都市의 共通現象인 住宅難에 鑑하야 中小住宅資金의 貸出을 積極的으로 行키로 된것인바 伊森頭取는 如左히 말한다

當行의 不動産貸出限度는 拂込資本金과 諸積立金의 合計를 限度로 하는데 現在의 限度는 三百二、三十萬圓임에 對하야 貸出은 二百七八十萬圓에 達하고 남어지 貸出餘力은 五、六十萬圓이나이것도 이미 各支店에 配定하얏슴으로 實際問題로서는 貸出餘力

總會二十六日開催

貯銀에서는 二日重役會를 開催한 結果 本月二十六日午前十一時부터 定期總會를 開催하고 下半期 諸決算案(八分配當決定)과 取締役 伊森、辻本 監査役 木村、金鍾洙의 四氏 任期滿了

有한것이다 한다는 銀行經營上의 理由도 倂

法定積立金 四五、〇〇〇
配當平均準備金 一五、〇〇〇
役員賞與金 一〇、〇〇〇
配當(年八分) 一〇〇、〇〇〇
特別積立金 五〇、〇〇〇
退職基金 一〇、〇〇〇
後期繰越金 六〇、一二〇

當期純利益金 二四四、四七七
前期繰越金 五五、八一二
合計 三〇〇、二九〇

에 伴한 改選의 件을 附議할터인데 利益金處分案은 如左히 查定하얏다

이것의 處分

三支店銀行 預金大超過

資金을日本內地로

地元銀行들은 資金難이지만

地元銀行의 資金難에 反比하야 最近의 調査에 依하면 三支店銀行의 預金合計는 四千四百八十九萬一千圓에 達하고 이에 對한 貸出은 三千一百五十四萬圓에 不過하야 約一千二百萬圓의 預金超過이다 三銀行中第一銀行은 殊히 極端的 超過라하며 第一、安田、三和의 三支店銀行은 모두 預金의 預金超過는 特히 커서 大約九百萬圓에 가까웁고 安田銀行은 預金貸出의 差違가 적다

이것을 朝鮮內各銀行의 預金貸出總額에 比較하야보면 預金은 總合計에 對하야 二九%를 示하얏스나 貸出은 一一%에 不過하다 이것은 第一銀行가튼곳이 傳統的信用으로 預金을 吸收하고 此等支店銀行에서 資金을 日本內地로 보내고잇는터이다

鮮滿特殊鑛 開發會社創立 資本三千萬圓

日本高周波重工業에서는 城津工場이 七月中旬에는 火入하고 富山縣新湊及北品川工場도 新設

移出港在米 九十萬三千石

全朝鮮各主要港의 六月末現在의 在米高는 九十三萬三千八百六十四石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三十二萬五千六百五十八石減 前月에 比하야 二十九萬四千四百四十五石의 各減少이엇다(單位石)

正租	三〇八、五三一
玄米	五六〇、三〇〇
白米	三一、〇九一
日本內地米	一九二
濟米	三、七五〇
合計	九〇三、八六四

小包郵便取扱狀況

全朝鮮各郵便局所에서 取扱한 最近一個月間의 小包郵便의 引受總數는 二百五十九萬三千二百七十七個로 配達은 三百九十二萬三千三百四十二個인데 前年同期의 取扱數에 比較하면 引受는 五分、配達은 五分强의 增加이다 右小包郵便通信力을 보면 人口百人當約十二個를 發하고 約十八個를 受하는 計算이다

簡保契約狀況

簡易生命保險의 六月末現在契約數는 日本內地人二十九萬八千件 朝鮮人八十二萬八千件 合計百十二萬六千件인데 其月額保險料는 百十三萬八千八百圓 保險金額은 二億一千四百三十六萬圓으로 人口千人當契約數는 日本內地人四百八十九件强 朝鮮人三十八件强이다

經濟日記

○極光工業會社開業=資本金二千萬圓의 極光工業株式會社는 永登浦町一一〇番地에서 開業하얏는데 取締役社長朱洛秀 專務李相憲氏라하며 營業種目은 如左하다고 極光發明考案品製作販賣, 工業用機械器具製作販賣, 農業用及家庭用機械器具製作販賣及修繕·諸機械·鑄工·鈑金·鍍金·琺瑯·木型委託製造, 前記各項附隨되는一切業務

○工事請負契約改正陳情=京城土木建築業協會에서는 日本內地의 工事請負契約書類를 參考하고 工事契約의 改正即現在의 片務契約을 雙務契約으로 改正할것을 研究中이든바 成案을 得하얏슴으로 先月末右協會案을 總督府에 陳情하얏다 現在의 工事請負契約은 明治四十四年制定에 依한 會計法

寸鐵

○ 貯銀에서 中小住宅金融을 積極的으로 貸出하리라고

○ 不動産金融硬塞인 이때에 이런 經營方針은 時宜에 適當할뿐아니라 銀行버리도 相當할것

伊森頭取곤대 人짓할만한일

○ 第一、三和、安田等三支店銀行에서는 預金超過라고 서울큰집信用가지고 시골가서 버리오는格

○ 專賣局課長級은 大概警察部長으로 轉任 專賣事業과 警察과의 關係若何?

○ 特殊銀行會社首腦部에 所謂 아마구다리(天降)가 朝鮮서는 定例

○ 어떤사람 말하기를 官界에잇더사람들은 財界에서 길러난 사람보다 朝鮮人事情에 精通하니 反對할것이 아니라는

○ 算盤만가지고 노지안는대서 하는말인듯

○朝鮮送電會社에 京城變電所規模=朝鮮送電會社의 京城變電所는 水色에 建設中이든바 本日上棟式을 擧行하고 十月完成豫定인데 右變電所의 規模는 工費約百三十萬圓으로 受電容量은 七萬五千키로、五萬키로와트인데 이나의 變壓器一臺 同據備를 一臺를 設備키로된 一方平壤京城間送電線(延長二百키로、鐵塔基數五百三十基)도 十月完成、十一月부터 送電을 開始키로되엿다고

○龍山工作會社增資=龍山工作株式會社(資本金四百二十萬圓)는 增資計畫中이든바 關係方面의 諒解를 得하얏슴으로 資本金五百二十萬圓의 新會社를 設立하고 이에 龍山工作을 合倂하야 舊會社는 解散하리라는데 新會社의 名稱은 朝鮮機械製作所라할 模樣이고 八月末或은 九月에 實現되리라고

○鐵道幹事會=朝鮮穀物協會에서는 三日午前十時半부터 京城俱樂部에서 幹事會를 開하고

一、顧問 相談役 推薦의 件
二、運賃問題에 關한 件

을 附議하얏는데 顧問相談役에는 左記諸氏가 推薦되엇다고

▲顧問 農林局長 殖産局長 鐵道局長 遞信局長 各道産業部長 穀檢所長 其他合計二十三名
▲相談役 穀檢監督課 調査課兩課長 各支所長 各道産業課長 鮮米協會理事等二十五名

就中에는 天災地變時의 企業者의 損失補償에 關한 事項의 規定이 업슴으로 이點의 改正을 하여 今日에 及하얏는데 右會計法中 大正十一年改正에 依한것으로

今日의 市勢 【三日】

株式 東新低나 鍾新高

前場鍾新高

前場은 鍾新에 昨後場의 續騰後를 이어 人氣强硬한 뒤에 外電은 弱含하야 米紐市場도 株가 모다 昂騰하야 鍾新도 諸株는 一般으로 高價를 비롯하야 回復機運이 되엇스므로 人氣는 다시 一段强化하야 寄付도 强硬裡에 始場하고 이어서 新規買物의 續出로 鍾新은 二百八十七圓臺로 뛰고 東新도 百五十七圓臺로 다시올릿스나 森聯鑛兵言明으로 日滿關係는 一段安心되고 形에데도 鐘新等事業株買는 主力株買現象의 再流行과 地場의 下買成으로 鍾新의 獨高를 示하엿고 日産도 强硬만 보이고 伸惱하다가 東新一五六、一鍾新二八六、〇 大新九三、四 日産八一、六으로 今週를 마치고 後場은 例休이엇다

實物前場取引

▲石川島新二八、〇〇▲東海鐵二八、六〇▲池貝鐵工新三五、一〇▲神戶製鋼新六八、四〇▲日曹鑛業二四、〇〇▲九州曹達新三〇、〇〇▲日浦賀船渠新四三、〇〇

優良株에 買氣

先保側優良株投資

株式市場은 勿論이지만 古今後에 統制을 强하리라 日中인데 統制에 優良株에 投資하려하는心算으로 優良株에 買進하고 잇다고한다 그래서 雖株는 보이고 레벨以下株에는 買氣가 업다고한다 今朝에는 製氷精이 今年八分配當으로 부터 來年一割配當의 로 나아가고 今年內에 最終拂込을 한다는 豫想으로 買進되어 八七、〇으로 二圓高이며 同新이 三圓五高로 六二、五를 보인것을 筆頭로 日産新이 一圓高인 六三、五를보이고 日曹系株는 日曹增資新株가 三十二圓으로 一圓五高이며 日曹鑛이 各其五高로 二五、〇二七、〇을 보엿스며 東拓新은 二分增配豫想을 買하야 三二、五로 五鑛高이며 에라파이新도 好調라하야 二一、七로 一圓二高이며 電工新은 二圓反撥로 四三圓丁唱이되엇다。日滿아두미新五九、五로 一圓五高이오 日立新은 五十二圓으로 一圓高이오 第三鋼管은 四四、五로 昨日에 比해 다시 一圓高이엇고 太平洋도 一圓高인데 神戶製鋼所는 一息商狀으로 不變이엇다

鍾新賣, 東新賣

鍾新買東新賣가 또다시 盛行하야 다시 鍾新天下를 보이고잇는듯 하나 東新의 判斷을 잡아 하려고하면 意外의 市勢를 낼는지도 未知니 東新이라고 買安心할 것이라는 觀測이 有力하다

危機解消이나 性急飛付操心

鍾新二十圓高 東新七十錢高

本周人氣가 上放한 市勢로 强弱材의 交錯으로 仕手筋의 强化로 相當한 波瀾을 演出하면서 上放한 鍾新은 先週 日支관계 樂觀되어 少額하에 越週하게되엇는데 日蘇關係로 益株만 弱含의 猶豫를 보면서 鍾新은 約三十圓高를 見하엿스니 買方勢力으로서는 이미 限界에 달한 形勢로 보며 ...

兩派의 主張點

新甫九限의 薄下朝로 發會한後 因仍保勢圈內에 入하야 二、三十丁範圍에서 一張一弛하는中인데 强弱兩方의 主張하는바에 依하면 軟派는 日本內地는 無類의 好順을 보하야 青田禮讚의 謳歌가 들리며 又는 朝鮮도 西北地方의 旱魃이 잇스나 穀庫의 南朝鮮은 별서 가 豐作을 豫想하고잇슴뿐아니니라 旱地인 西北地方도 好雨로부터 豐作을 豫想하고잇슴이니 將來하는대는 植付를 完了하야 米의 豐作을 可期할수도잇스며 又는 市勢의 價位로 보아서 更히 買進할 餘地가 업다고 主張하며 硬派는 日앞으로 天災期가 逐然하다

反撥은 一時的 大勢는 旣定?

日本內地及 朝鮮의 西北地方은 旱天으로 植付不能의 곳이 若干잇스나 此는 不遠한 時日에 好雨가 來하는 대는 完了할 것으로 볼수잇고 其他地方은 豐作의 謳歌를 불러 豐作의 樂觀으로 벌서 市勢도 去四月의 第一天井을 비롯하야 三十三圓三十一錢의 第二天井과 六月의 第三天井 五月의 第二天井을 보기조케 내엇다 今月에 入하야는 第四天井을 내는듯한 觀이 업지아니하다 그런데 當地의 市勢가 阪地보다 高勢이며 他各地에 比하야 比較的强硬한 數가 二百丁內外에까지 縮少하게 되엇슴은 當中에 直한 地場其他 有力側의 買物이 增加한 것으로 先限의 低落도 容易히 不許할 것으로 ...

市場六感

株

…高價를 겨누어 買하든 조오나 高下를 다 먹으려다가는 나는새도 못잡고 쥐인새도 날리는법▲市勢에 處하는 법은 大勢를 보아 한길을 잡고 나아가는것이 最善의 길▲豫算膨脹이 謳歌되면 그 反面에 物價抑制統制强化가 잇스니 今後의 市勢도 順風만이 아니겟고 사공들이여!風浪에 覺悟準備는 얼마나하여는고?(金剛城)

米

…當中의 市勢는 正米의 實勢를 唯一한 背景으로 하고 잇스며 先限은 東西市場을 不問하고 植付樂觀을 材料로 하고 잇다▲그러나 當中의 先三期는 언제든지 서로 反齒의 關係가 업지아니한만큼 先限이 떠러지는 때는 當中도 또한 떠러질것이오 當中이 오르는 때는 先限도 울며겨자먹기로 오르고 말것이다▲그러데 昨今當地形便으로 보아서는 地場有力側이 當中兩限을 握하고잇는만큼 先限이 不知中 伯仲兩氏의 엽을 떠나지 못하고 잇는 光景(華山)

國債 閑散裡에 區區

▲東京【東京電話同盟】株界의 好況으로 未券의 好買行을 氣가 적으나 人氣가 떨어져 活感하야 多少買氣가 잇서서 甲號五錢高 二回四分五錢低를 示한 外에는 大體堅調하야 米貨도 六分半、五分半共히 四、六十錢高를 示하얏다

△甲五分利一〇二、六〇△二回四分利一〇二、〇五△佛貨一九六、五〇

期米 賣氣漸加 低迷

前場低迷

地先限三十三圓六十二錢인 五丁 今朝前場은 低...

正米 不賣不買 閑散

京城不變

所持側은 低價인 賣物을 내지안코 買方도 先尙期待로 傍觀態度를 繼續하야 目下로는 不賣不買의 消極商狀이다

仁川保合

晴天繼續인대라 低價買物이업고 買方도 賣行不振으로 一般은 買控하야 市場은 活氣가업서 閑散場面이엇다。
㊥穀良三等三一、四〇 四等三一、一〇 銀坊主三等三一、四〇 四等三一、六〇 多摩錦三等三一、七〇 一等白米三一、〇〇

釜山保合

産地의 賣氣가 多少엿보이나 品薄인데다 低價賣物을 내지안코 精米側의 必需手當으로 閑散을 繼續하고잇다
㊂穀良三等三一、〇〇 四等三一、八〇 一等白米三三、三〇

大邱硬化

正米取引은 大勢가업서 依然閑散한 市場이나 今朝期米의 好調로 人氣强하야 氣配十錢硬化를 보엿다 ㊂穀良三等三一、五〇 四等三一、三〇 一等白米一三、一〇

群山不變

無材料繼續으로 買氣는 入荷不足하야 依然閑散하다 人氣不振으로 小口의 買物이 잇슬뿐이어서 市價도 不變이다 ㊂穀坊主三等三一、六〇 四等三一、四〇 一等白米一三、六

木浦不動

依然賣物가 無로 氣配는 前日同樣이라고 보인다 ㊂銀坊主三等三一、八〇 四等三一、九〇 一等白米一三、

朝取期米取組內容

當中은 反히 買方針을 樹할수잇스나 先限은 賣方針이 得策가 아닐가한다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今日財界三日

◆米 (單位圓) 仁川期米先限 大阪期米先限 京城一等米 正租 一斤價 [illegible]

◆株 (單位十錢) 鐘新 東新 日産新 綿糸 生糸 人絹 砂糖 [illegible]

海外經濟 二日

[illegible]

銀行券 二日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麴油粕·麥粉

◆阪神麴粕◆ ◆阪神麴油◆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仁川正米◆ [illegible]

對外爲替

◆金買入價◆ [illegible]

正租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本絹交織人絹

◆京城絹布◆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安東大豆 安東豆粕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短期主要取組高◆ ◆實定代引日步◆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大阪長期◆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東京現株◆ ◆東京短期取組◆ ◆東京短期◆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阪期米◆ ◆大阪期米取組◆ ◆木浦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大邱期米◆ ◆東京期米◆ [illegible]

綿糸

◆大阪綿糸◆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生糸

◆橫濱生糸◆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illegible]

株式 期米 玉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柳來恒取引店

益 京城 仁川 金益證券 益康

銀 金 石土白賣 分金金買 析 金銀賣買會社 京城府南大門通一ノ九五 電話本局二一三八〇番 振替京城一三四八〇番 鑛石分析

東 期米 仁川海岸町三丁目 趙俊鎬取引店

金白·銀金 京城明治町 杉山商會